
碩士學位請求論文

兒童의 性格類型과 進路類型과의 關係

指導教授 朴 泰 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高 銀 華

1998年 8月

兒童의 性格類型과 進路類型과의 關係

指導教授 朴 泰 秀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提出者 高 銀 華



高銀華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 | |
|-------|---|
| 審査委員長 | 印 |
| 審査委員 | 印 |
| 審査委員 | 印 |

< 國文抄錄 >

兒童의 性格類型과 進路類型과의 關係¹⁾

高 銀 華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指導教授 朴 泰 秀

학교교육의 출발점인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전체 진로교육의 첫단계로서, 다음 단계로의 진로교육이 진행되는 기초 및 방향 결정의 열쇠가 된다. 는 점에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진로유형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각 성격유형에 적절한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알고 효과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격유형의 네가지 선호경향(E-I, S-N, T-F, J-P)은 진로유형(R, I, A, S, E, C)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능(ST, SF, NT, NF)은 진로유형(R, I, A, S, E, C)에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질(SP, SJ, NT, NF)은 진로유형(R, I, A, S, E, C)에서 차이가 있는가?

1) 본 논문은 199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위의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313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MMTIC 검사를, 아동의 진로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발달검사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네가지 선호경향 중 명백한 선호성을 나타내지 않는 U밴드를 나타내는 아동을 포함시킨 전체 313명의 자료와 U밴드를 제외시킨 156명의 자료로 나누어 SPSS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보면 네가지 선호경향 중 외향형(E)이 진로유형 중 사회적 유형(S)에서, 직관형(N)이 실재적 유형(R)과 탐구적 유형(I)에서, 감정형(F)이 사회적 유형(S)에서 많이 나타났다. 네가지 기능에 따른 진로유형의 형태로는 진로유형 중 사회적 유형(S)에서 NF, SF, NT, ST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아동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유형을 탐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네가지 선호경향 모두가 뚜렷하지 않은 아동도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유형을 탐색하는데 포함해야 한다.

셋째,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유형 탐색에서 외향형인 경우에는 사회적 유형으로, 직관형인 경우에는 실재적 유형과 탐구적 유형, 감정형인 경우에는 사회적 유형쪽으로 진로탐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성격의 네가지 기능 중 F가 들어가 있는 NF, SF형인 경우에는 사회적 유형쪽으로 탐색한다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진로유형을 선택한 것이다.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문제와 가설 | 4 |
| 3. 연구의 제한점 | 5 |
| II. 이론적 배경 | 6 |
| 1. 성격유형론 | 6 |
| 2. 진로유형론 | 18 |
| 3. 성격유형과 진로유형 | 26 |
| III. 연구방법 | 32 |
| 1. 연구대상 | 32 |
| 2. 측정도구 | 32 |
| 3. 자료처리 | 35 |
| IV. 결과 및 해석 | 36 |
| V. 요약 및 결론 | 54 |
| 1. 요약 | 54 |
| 2. 결론 | 56 |
| 3. 제언 | 57 |
| 참 고 문 헌 | 59 |
| ABSTRACT | 63 |
| 부 록 | 65 |
| < 부록 1 > 진로유형의 성격과 현저한 특징 | 65 |
| < 부록 2 > 아동용 성격유형 검사지 | 67 |
| < 부록 3 > 진로 발달 검사지 | 75 |

표 목 차

| | |
|--|----|
| < 표Ⅱ-1 > MBTI에 의한 16가지 성격유형 | 10 |
| < 표Ⅱ-2 > 6개의 작업환경의 특징 | 21 |
| < 표Ⅱ-3 > 6개의 적응방향의 특징 | 22 |
| < 표Ⅲ-1 > 진로발달 검사지 신뢰도 검증결과 | 34 |
| < 표Ⅳ-1 > U밴드를 포함한 지표별 선호 분포도 | 36 |
| < 표Ⅳ-2 > U밴드를 제외한 지표별 선호 분포도 | 37 |
| < 표Ⅳ-3 > 16가지 성격유형 분포도 | 38 |
| < 표Ⅳ-4 > 기능 및 기질별 분포도 | 39 |
| < 표Ⅳ-5 > 여섯가지 진로유형의 평균 | 39 |
| < 표Ⅳ-6 > E-I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포함) | 40 |
| < 표Ⅳ-7 > E-I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제외) | 41 |
| < 표Ⅳ-8 > S-N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포함) | 42 |
| < 표Ⅳ-9 > S-N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제외) | 43 |
| < 표Ⅳ-10 > T-F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포함) | 44 |
| < 표Ⅳ-11 > T-F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제외) | 45 |
| < 표Ⅳ-12 > J-P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포함) | 46 |
| < 표Ⅳ-13 > J-P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제외) | 47 |
| < 표Ⅳ-14 > 기능유형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포함) | 48 |
| < 표Ⅳ-15 > 기능유형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제외) | 49 |
| < 표Ⅳ-16 > 기질유형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포함) | 51 |
| < 표Ⅳ-17 > 기질유형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제외) | 52 |

그 립 목 차

| | |
|------------------------------------|----|
| < 그림Ⅱ-1 > MBTI에 의한 8가지 선호경향 | 8 |
| < 그림Ⅱ-2 > MMTIC에 의한 심리적 기능유형 | 15 |
| < 그림Ⅱ-3 > Holland의 육각형 모형 | 25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한 산업이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직업의 종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복잡다양한 직업세계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일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자기 자신의 적성, 흥미, 인성, 신체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 원하는 삶의 목표와 진로를 선택하여 바람직한 생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김영숙, 1993).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학교교육의 본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 적성, 흥미, 포부, 학업 성취도 등을 종합하여 그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교육의 출발점인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전체 진로교육의 첫 단계로서 그 뿌리가 된다. 또한, 다음 단계로의 진로교육이 진행되는 기초 및 방향 결정의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도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로교육이나 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실시여부는 학생 개개인의 앞날은 물론, 사회·국가의 미래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국어·수학 등 도구교과 위주의 학습과 학부모의 취향에 의한 예능계 학원 교습에 치중되어 학생의 적성에 따른 진로탐색 및 결정에 관한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발달은 지속적인 과정으로써 인식, 탐색, 준비 및 전문화의 단계를 거친다는 진로발달적 견해에서 보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에 대해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인식의 단계이자 진로탐색의 초기 단계로 중·고등학교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6·3·3·4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가장 길다. 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기까지의 6년이라는 시간동안 놀라운 성장과 발달을 보인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이후 단계인 중·고등학교, 나아가 대학진학·취업을 하고서도 자신의 진로·직업에 대해 혼란을 갖는 일이 없이 자신이 택한 직업에서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모습은 아동 개개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모습으로는 10개나 되는 교과 중 몇 개 교과, 몇 개 단원에서 직업세계에 대한 내용을 미흡하게 담고 있고, 아동자신과 부모·교사가 아동의 성격특성이 어떤지, 그 성격특성에 맞는 진로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채 단지 직업에 대한 선호도 정도만을 교사가 아동과 부모에게서 조사하여 기록해 두는 실정이다.

진로나 진로발달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진로발달을 성격 특성, 자아개념, 성격유형 등의 개인 특성 변인과 관련시켜 연구한 것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다. 위의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을 살펴보았더니 교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성숙 및 진로의사결정 행동유형에 관한 것은 많은 편이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며, 초등학교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초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진로교육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개인의 능력·적성·흥미 등 아주 다양하나 무엇보다도 아동의 성격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진로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프로그램들 중에서 김수자(1991)는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자아개념 하위 변인 중 성격적 자아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

고, Holland는 성격특성과 진로를 관련시켜 진로발달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허선자, 1995. 재인용).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가 있다. MBTI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Jung은 어린이의 성격 발달이란 평생을 통하여 천천히 단계별로 성장해 가는 씨앗과 같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자신의 타고난 선호경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호경향의 발달은 그 타고난 잠재력의 개발과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진로교육과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김정택, 심혜숙, 1993).

초등학생의 진로를 이해하는데는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진로성숙도 검사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진로에 대한 인식만을 제시하여 구체적 조작기인 초등학생에게 구체적인 진로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를 위해서는 중·고등학생의 진로지도와 같이 구체적인 진로유형을 보여주는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최근 인성과 아동발달 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3~4학년이 되면 자신의 진로 및 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이러한 관심으로 6학년이 되면 많은 학생이 잠정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므로 이 시기에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자기인식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수준에서 아동들은 장차 그들의 포부와 성취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지각과 직업선택에 동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흐름은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그런 자신의 성격유형에 맞는 진로를 탐색해 보도록 진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서 성격 유형과 이에 상응하는 진로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내어 초등학교의 진로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아동의 성격유형과 진로유형에 적절

한 진로교육을 하고, 아동역시 자신의 성격에 알맞는 진로를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연구문제와 가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격유형과 진로발달 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유형의 네가지 선호경향(E-I, S-N, T-F, J-P)은 진로유형(R, I, A, S, E, C)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능(ST, SF, NT, NF)은 진로유형((R, I, A, S, E, C)에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질(SP, SJ, NT, NF)은 진로유형(R, I, A, S, E, C)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성격유형의 네가지 선호경향은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a. 외향성향(E)을 지닌 집단과 내향성향(I)을 지닌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b. 감각성향(S)을 지닌 집단과 직관성향(N)을 지닌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c. 사고성향(T)을 지닌 집단과 감정성향(F)을 지닌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d. 판단성향(J)을 지닌 집단과 인식성향(P)을 지닌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능(ST, SF, NT, NF)은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a. 네가지 기능에 따라 분류된 집단(ST, SF, NT, NF)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질(SP, SJ, NT, NF)은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a. 네가지 기질에 따라 분류된 집단(SP, SJ, NT, NF)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대상이 제주시지역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들을 표집대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둘째, 아동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에 국한하여 진로유형을 결정하였다.

셋째, 진로인식의 단계인 초등학생의 진로유형을 성격유형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성격유형과 진로유형이 뚜렷하지 않은 아동에게까지 적용하기가 어렵다.



II.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Jung의 성격유형론과 아동용 성격유형검사에서 보는 성격유형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진로발달이론중에서 진로발달검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Holland의 진로유형론을 살펴본 후 성격유형과 진로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1. 성격유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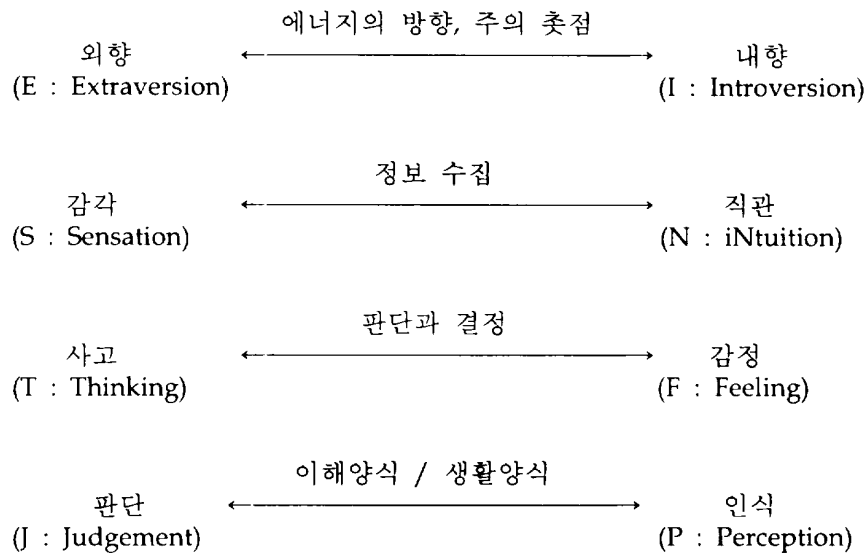
1) Jung의 성격유형론

인간의 성격을 유형으로 나누어 개인간의 차이를 설명하려 했던 최초의 시도는 바로 에니오그램(Enneagram)으로 불리는 수피교의 신비주의로, 그들은 9가지 숫자로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에니오그램은 기원전 2500년경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인간의 성격모형인 에니오그램에서는 인간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심리적인 지향, 예를 들면, 정서, 행동 그리고 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고대 동양의 점성가와 희랍의 학자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공기, 물, 땅 그리고 불과 같은 원소를 통해서 설명하려 했다. 이러한 고전적인 시도 이외에도 인간의 성격특징을 유형화함으로써 보다 자세히 개인차를 설명해 보려는 시도는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다(김에스더, 1996, 재인용).

인간의 개인차를 이해하려는 이러한 욕구에 힘입어, Jung은 사람들을 보다 깊이 관찰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성격유형론(Psychological Types Theory)을 1920년에 선보였다. Jung의 성격유형론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사물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고 판단하며, 판단한 것을 다르게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다름에는 개인마다 일관된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Jung은,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

는 선호방식에 따라 인간의 성격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인간은 정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아들이거나 반응하는 데 있어서 저마다의 선호하는 방식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보았다. 이같은 Jung의 성격유형론의 핵심은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개인 내부에는 일정한 일관성과 질서가 있다고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김정택, 심혜숙, 제석봉역, 1995). Jung은 성격을 외향성과 내향성의 두 가지 태도로 구분하였다. 외향성의 정신에너지(리비도)는 대상, 인물, 동물 등을 객관적 사실과 조건에 기초하여 지각, 사고, 감정을 갖기 때문에 자기와 타인 및 사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며 주위의 일들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에 반해 내향성의 리비도는 주관적인 정신구조와 정신과정에 기초하므로 자기의 내적 세계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내성적이며 신중하고 자기 마음 속의 사건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고루하게 비치며 비사교적이고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두 가지 태도는 상반된 것으로 개인은 대개 어느 한 쪽의 태도를 일생에 걸쳐 우세하게 나타내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지적인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생활의 상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격의 유형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이해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므로 인간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겠다. Jung에 따르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선호경향에는 < 그림 II-1 >에 제시했듯이 양 측면이 모두 있다고 보았다. 즉 타고난 경향성이 내향성인 사람이라면 외향성은 미분화된 상태에 있으므로 타고난 방향인 내향성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일뿐 미분화 상태의 외향적 측면 역시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 그림 II-1 > MBTI에 의한 8가지 선호경향 (김정택, 심혜숙, 1995)

Jung의 유형론에 있어서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두 가지 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심리적 기능들로 여기에는 사고(T)와 감정(F), 감각(S)과 직관(N)이 있다. 사고(T)란 여러 관념을 연결시켜서 일반적 관심 또는 문제해결에 도달하는 기능으로 사물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 기능이다. 감정(F)은 판단의 기능으로 어떤 관념이 상쾌한 감정을 일으키는지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지에 의해 그 관념을 받아들여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는 기능을 한다. 감각(S)이란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해 생기는 모든 의식적 경험을 포함한다. 직관(N)은 사고와 감정의 결과로써 생긴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감각과 비슷하지만 그 차이는 직관을 가진 당사자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혹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설영환 역, 1995). Jung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심리적 에너지가 그 사람의 내부에서 생기는 사람과 바깥에서 연유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았고 어떤 사람은 내향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외향성이 되며, 이로 인해 인간의 외부환경을 대하는 방법에도 각기 개인차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4가지 마음의 기능인 사고(T), 감정(F), 감각(S), 직관(N) 중 하나가 주기능이 되는데 주기능

은 가장 선호하는 경향으로 가장 먼저 발달되며 주기능을 보조하는 것이 부기능으로써 인식기능 중 하나가 주기능이 되면 부기능은 판단기능 중 하나가 되어 인식과 판단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김정택, 심혜숙, 1990).

인간 행동의 다양성은 저마다의 인식하고 판단하는 특징이 있게 마련이다. 인식과정은 우리가 사물, 사람, 사건, 생각들을 의식하여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는 방법들을 포함하며, 판단과정은 우리가 인식한 것에 대해 구조화하고 수행해나가는 모든 방법들을 말한다. 저마다 여러 가지를 인식하고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다르다면, 이에 따른 그들의 반응, 관심, 가치, 동기, 기술, 흥미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나 편견은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인식과 판단기능의 사용은 서로 다른 재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성격유형에 따른 부적응적 대처기술표현도 각기 다른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김정택, 심혜숙, 1995).

이와 같은 Jung의 성격유형론을 근거로 Katherine Cook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인간이해를 위해 개발해 낸 도구인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Briggs는 인간에 대한 차이와 갈등에 관해 관심을 가지면서 자서전 연구를 통해 성격을 분류하게 되었다. 1921년 Briggs는 Jung의 유형이론을 자신의 이론과 접목시켰고 1921년부터 1942년까지 그녀의 딸인 Myers와 함께 인간을 관찰하여 이러한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MBTI의 초기형태를 제작하였고 1962년에는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Form F를 제작하였으며 1975년에 문항재분석에 의해 MBTI Form G를 제작하여 현재 사용하는 95문항으로 구성된 심리유형검사(MBTI)를 만들게 되었다. 한국판 MBTI는 김정택, 심혜숙에 의해 1988년부터 CPP(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와 정식계약 아래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어 한국판 표준화작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김정택, 심혜숙, 1995)

MBTI는 인간의 차이와 갈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되고 사용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MBTI의 목적은 인간 정신의 통합에 두고 있는데, 이 통합으로 향하는 과정을 통해 나와 타인의 성

격적 특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폭넓고 깊이 있는 인간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MBTI는 8가지 선호경향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 개인의 성격유형을 설명하고 이런 성격유형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기술함으로써 한 개인의 성격유형과 행동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표Ⅱ-1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4가지 지표에는 주의집중과 에너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내향(E-I)지표, 정보수집과 인식의 기능을 하는 감각-직관(S-N)지표, 수집하고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인 사고-감정(T-F)지표, 인식기능과 판단기능이 생활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판단-인식(J-P)지표가 있다.

8가지 선호경향인 E-I, S-N, T-F, J-P가 조합되면 16가지 성격유형이 < 표Ⅱ-1 > 와 같이 나타난다.

< 표Ⅱ-1 > MBTI에 의한 16가지 성격유형 (김정택, 심혜숙, 1995)

| | | | | |
|--------------------|--------------------|--------------------|--------------------|----------------|
| ISTJ 내향성 감각형 | ISFJ 내향성 감각형 | INFJ 내향성 직관형 | INTJ 내향성 직관형 | E 외향형 I 내향형 |
| ISTP 내향성 사고형 | ISFP 내향성 감정형 | INFP 내향성 감정형 | INTP 내향성 사고형 | S 감각형 N 직관형 |
| ESTP 외향성 감각형 | ESFP 외향성 감각형 | ENFP 외향성 직관형 | ENTP 외향성 직관형 | T 사고형 F 감정형 |
| ESTJ 외향성 사고형 | ESFJ 외향성 감정형 | ENFJ 외향성 감정형 | ENTJ 외향성 사고형 | J 판단형 P 인식형 |

2) 아동용 성격유형검사에 의한 성격유형

아동용 심리유형검사(MMTIC : 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는 성인용 성격유형검사(MBTI)와 같이 Jung의 성격유형이론에 근거를 두고 1990년 미국의 Meisgeier와 Murphy가 개발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1993년 김정택, 심혜숙에 의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만 8세에서 만 1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었다.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차를 가진다. 개인마다 보이는 저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존중되고 이해되는 환경일 때 아동은 고유한 개성과 능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아동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의 차이점을 성격유형과 연관지어 보고, 각 아동이 어떻게 인식하고, 인식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판단하는가를 알고 심리유형이 지니는 힘을 자유로이 사용하면서 자랄 때 아동은 고유의 성격유형발달을 일관성있고 건강하게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아동의 발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써 이들이 아동고유의 성격유형과 각자가 지닌 개성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김정택, 심혜숙, 1994).

특히 성격유형검사에서는 한 인간의 성격의 특성을 네가지 선호경향과 네가지 기능, 네가지 기질면에서 나누어 보기 때문에 이 세 영역 각각을 살펴 보려 한다.

(1) 심리유형의 8가지 지표가 나타내는 아동의 특성

심리적 선호지표(E-I, S-N, T-F, J-P)에 따른 성격유형에 따라 아동의 특성은 저마다 다르다. 여기에서 심리적 선호지표란 더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활용하고, 선택적으로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하며, 더 좋아하고 편하며 쉽고 상대적으로 더 쉽게 끌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이 인식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Jung에 따르면 이러한 성격유형 발달은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평생동안 일어나는 과정으로써 바람직한 유형발달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이라는 4개의 양극 지표 중 하나씩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표의 특성을 간략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외향형(E)은 활발하고 적극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말로 많이 표현하는 반면, 내향형(I)은 조

용하고 침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몇몇 친구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또, 혼자 놀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많으며 생각을 많이 한 후에 행동을 한다. 감각형(S)은 구체적인 보기를 들어서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할 때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보다 남들이 하는대로 따라 하거나 익숙한 놀이나 활동을 더 하려고 하는 편인 반면에, 직관형(N)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전에 하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과제와 숙제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고형(T)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물어보는 편이고, 게임을 할 때도 규칙을 중요시하며,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주장하는 편인 반면, 감정형(F)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민감하고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또,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으면 눈물을 쉽게 흘리는 편이다. 판단형(J)은 책임감이 강하고 예정에 없던 일이 생겨 계획을 갑자기 바꾸면 불편해 하며, 자기방이나 책상을 깨끗이 정돈하는 편인 반면, 인식형(P)은 시험보기 전에 계획표를 짜기는 하나 중간에 변경을 많이 하는 편이고, 방이나 책상을 대체로 정리하지 않는 편이다.

이와 같은 선호지표(E-I, S-N, T-F, J-P)에 의한 성격유형에 따라 아동은 저마다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며 개인차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성격유형은 아동자신 뿐 아니라 주위의 성인이 이해하여 고유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성격유형을 이해할 때 부모-자녀간의 관계와 아동-교사와의 관계 및 아동자신-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녀교육을 할 때에도 부모-자녀의 성격유형 차이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갈등을 이해하고 아동의 발달이 부모의 성격유형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과 다른 아동에 대한 수용도가 넓어지고 성취동기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결국 아동의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지능개발 및 성장상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과정 중 가족 안에서 부딪치는 적응문제와 가족들의 상호이해를 높여줌으로써 가족치료에서도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김정택, 심혜숙, 1995).

아동의 성격유형을 다룬 김정택, 심혜숙의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2592명을 전체표집으로 하여 수행한 MMTIC 연구(1993)에 따르면 뚜렷한 선호경향을 나타낸 분포는 남녀 1058명이었으며, 외향형(E)은 66%가 나왔는데 이는 MBTI를 통해 한국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40~4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S-N지표에서도 58%가 직관형(N)으로 타나났는데 이것은 한국성인의 약 2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며 T-F지표에서 감정형(F)의 비율이 88%로서 한국성인(약 40%)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P지표에서는 인식형(P)의 비율이 82%로서 한국성인(약 2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아동들은 외향적이고 자기표현이 활발하고 직관경향이 높으며 관계지향적이며 행동양식이 규제나 규범에 매이기보다는 자유스럽게 자신을 표현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성인들의 일반적인 성격유형(35% : ISTJ, ESTJ, ISFJ)은 보수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안정을 추구하고 현실지향적인 것에 비하여 한국아동의 52.7%(ENFP, ESFP)는 활동적이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관심을 나타내고 변화를 선호하며 규칙이나 규범에 매이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과 성인간의 성격에서의 대비현상은 자녀교육과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부모-자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도 교사와의 관계와 학습스타일에 대한 갈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아동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ENFP, ESFP(42.1%)는 오히려 한국의 아동이 좀더 높게 나타났다(김정택, 심혜숙, 1993). 그러므로 아동과 성인 사이의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성격유형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성격유형을 다룬 국내연구는 아직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되어오고 있다. MMTIC에 나타난 국민학생의 성격유형과 지능 및 학업성취관계 연구에서는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인 직관형(N)과 인식형(P)이 학업성취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지능 및 학업성취가 낮은 초등학교 학생에게 그들의 성격유형에 맞는 학습양식으로 대처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정경연, 1994).

또, MMTIC을 활용한 집단진로상담이 진로성숙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이를 통한 진로상담이 진로성숙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보다 많이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류영옥, 1994).

Meisgeier와 Murphy(1987)에 따르면 8가지 선호지표가 미분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U밴드 지표가 있는데 이는 양극지표에서 중심영역에 위치하여 어느 한쪽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라 정의하고 있다. 아동용 성격유형검사(MMTIC)는 이론상으로는 성인용 성격유형검사(MBTI)에서 나온 것이지만 E-I, S-N, T-F, J-P 지표의 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선호성을 나타내지 않는 아동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구분한 것은 심리유형은 발달적 현상이며, 상당수의 아동은 그들의 선호성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는 것이다.

만 7세에서 만 15세까지의 2591명을 대상으로 한 김정택, 심혜숙의 연구에서 나타난 연령에 따른 U밴드의 분포에서 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U밴드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각 지표가 분화되어 점차 뚜렷한 선호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 7세에서 12세까지는 U밴드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다가 13세에서 15세로 들어가면서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춘기의 영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일시적인 혼란현상으로 보여진다(김정택, 심혜숙,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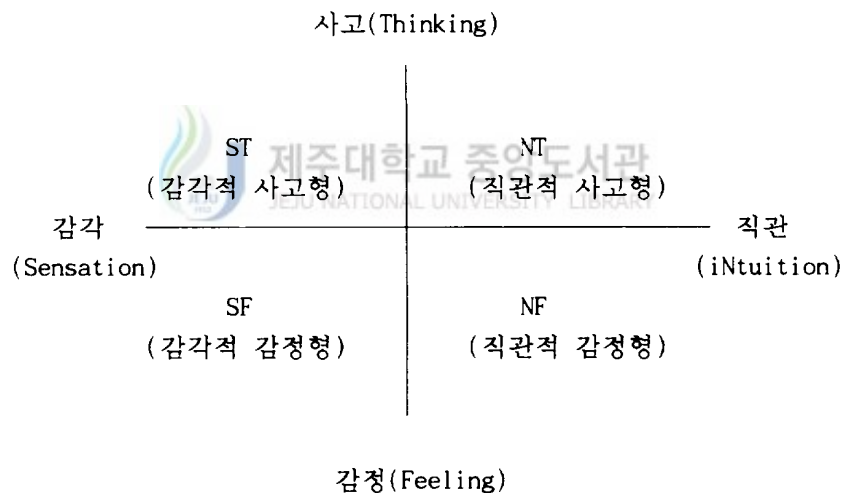
따라서 아동의 성격유형 발달현상을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U밴드의 비율이 낮아지고 선호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문장이해능력이 발달된 후기 아동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인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2) 심리적 기능유형

정신의 기능은 사고(T), 감정(F), 감각(S), 직관(N)기능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Jung은 사고(T)와 감정(F)기능을 합리적 기능이라 하고, 감각(S)과 직관(N)의 기능을 비합리적 기능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각 기능을 구성하는 두

기능은 서로 양극을 이루어 대립화되고 있다(이부영, 1991).

MBTI와 MMTIC에서는 이 두 기능을 판단기능과 인식기능이라 하고 사고(T)와 감정(F)을 판단(J)기능, 감각(S)과 직관(N)을 인식(P)기능이라 한다. 이러한 심리적 기능유형으로 사고(T)와 감정(F), 감각(S)과 직관(N)이 있는데, 사고(T)는 여러 관념을 연결시켜서 사물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 기능이다. 감정(F)은 판단의 기능이며 어떤 관념이 어떠한 감정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그 관념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감각(S)이란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해 생기는 모든 의식적 경험이며 직관(N)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경험인데 당사자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 이러한 판단기능(T-F : 사고-감정)과 인식기능(S-N : 감각-직관)을 배합하여 심리적 기능유형인 감각적 사고형(ST), 감각적 감정형(SF), 직관적 사고형(NT), 직관적 감정형(NF)의 4가지로 구분한 것은 < 그림 II-2 > 과 같다.



< 그림 II-2 > MMTIC에 의한 심리적 기능유형 (김윤희, 1996. 재인용)

Hanson(1982)이 살펴본 심리적 기능유형(ST, SF, NT, NF)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ST(감각적 사고형)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이며 사실을 모으고 확

인하는 것을 선호하며, 계획적이고 훈련이 반복되는 암기식 학습을 선호한다. SF(감각적 감정형)는 친절하며 주관성과 사물들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측정하고, 인간적인 유대감 및 사회적인 학습을 선호한다. NT(직관적 사고형)는 논리적이고 독창적이며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조사와 개념형성 학습을 선호한다. NF(직관적 감정형)는 정열적이고 통찰력이 있으며 온화하며, 창조적·예술적 표현이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과제를 선호한다.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른 특성이 다르고 선호하는 학급 분위기와 학습스타일이 다르듯이 아동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유형도 아동마다 개인차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국내의 심리적 기능유형을 연구한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MMTIC의 네 가지 심리적 기능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NT, SF, ST, NF의 순으로 학업성취가 높다고 나타났으며(송종건, 1993), 허정의 연구결과는 NT, ST, SF, NF순으로 나타나서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는 NT유형이 가장 높고 NF유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정, 1991).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NF, SF, NT, ST의 순으로 학업성취가 높다고 나타나(정경연, 1994) 점차 고학년이 될 수록 NF형이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것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연구가 심리적 기능유형과 학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기능유형과 진로유형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초등학생의 진로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 MMTIC연구에서도 요망된다고 보겠다

(3) 심리적 기질 유형

기질이란 서로 다른 힘들이 완화되거나 통합되고 상반되는 영향력들이 서로 완충되거나 상호용인되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종합되고 다양한 것들이 일관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유형을 통해 사람을 설명하려고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은 그리스 의사인 Hippocrates로 그는 모든 사람이 4가지의 기

질유형인 우울질(Melancholic), 다혈질(Sanguine), 담즙질(Chileric), 점액질(Phlegmatic)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보았다. 1907년 Adikes는 인간이 네가지 세계관인 교조적, 불가지론적, 전통적, 현실적 세계관으로 분류된다고 보았고 1920년에 Kretschmer는 비정상적 행동은 감각과민적, 무감각증적, 우울증적, 조울병적 기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1920년경에 Adler는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된 상태에서 추구하는 4가지 잘못된 목표로서 인정, 권력, 봉사과 복수를 들었으며 또한 Spranger도 사람들을 갈라놓는 4가지 인간적 가치로 종교적, 이론적, 경제적, 예술적 가치를 논하였다(김윤희, 1996. 재인용).

그러다가 1930년대까지는 이들의 관점은 무시되고 역동적 심리와 행동주의적 심리학이 주를 이루었다. 1950년에 와서 Isabel Myers가 Jung의 성격유형을 근거로 그의 모친 Katherine Briggs와 함께 만든 MBTI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출발하여 Hippocrates, Adikes, Kretschmer, Adler, Spranger가 말한 4가지 기질 이론과도 거의 들어맞았다. 그러나 네가지 기질에 대해 Hippocrates가 붙인 이름은 네가지 체액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애매하고 제한되는 것에 반해 Zeus로부터 사람들이 좀더 신을 닮도록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네 신들은 비록 은유적이긴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그러한 기질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 신들이란 아폴로, 디오니소스, 프로메테우스와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이다. 아폴로는 인간에게 정열을 가져다 주라는 명령을, 디오니소스는 인간에게 기쁨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과학을 가져다주라는 명령을, 그리고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의무감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네가지 기질은 Murphy-Meisgeir의 기질유형(감각적 판단형 : SJ, 감각적 인식형 : SP, 직관적 사고형 : NT, 직관적 감정형 : NF)과 연관시켜 볼 수 있으며 각 기질을 지닌 아동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김정택, 심혜숙, 임승환 역, 1993).

SJ(감각적 판단형)는 에피메테우스적인 감각적이면서도 신중한 기질의 아동으로 우울질로서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유형이다. 안정과 소속감을

추구하고, 계획에 따라 학습하며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정리정돈을 선호한다. SP(직관적 사고형)는 디오니소스적인 감각적이고 유의적인 기질의 아동이며 다혈질로서 희망적이며 낙관적인 유형이다. 활동지향적이고, 자유로움을 선호한다. NT(직관적 사고형)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직관적이고 사고형 기질의 아동이며, 담즙질로서 화를 잘 내고 분노를 가진 유형이다.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논리적 이유를 추구한다. NF(직관적 감정형)는 아폴로적인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기질의 아동이며 점액질로서 조용하고 활발하지 않은 유형으로 정서적 민감성을 보인다.

따라서 네가지 기능과 같이 각각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네가지 기질과도 진로유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2. 진로유형론

1) 진로발달이론

진로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 진로발달이론은 여러 학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으며 진로발달상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특정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체계화 했다.

Amates(1975)는 진로발달 이론을 특정 시점에서 진로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나 진로선택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일회적 선택이론과 일생에 걸쳐 누가적인 진로선택 과정을 강조하는 발달이론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에 속하는 이론에는 특성이론이 있으며, 후자에 속하는 이론으로는 Super, Ginzberg의 이론이 있다. 또한 Herr와 Crammer(1979)는 특성요인이론, 의사결정이론, 사회이론, 심리이론, 발달이론으로 분류했고 Tolbert(1980)는 특성요인이론, 욕구이론, 발달이론, 정신분석이론, 사회이론, 의사결정이론, 사회화이론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Cristiani와 George(1981)는 특성요인이론, 구조이론, 발달이론, 의사결정이론 등으로 분류했다. 구조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심리적 특성과 직업의 구조적 특성간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두 특성을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입장에서 Parsons의 특성-요인이론, Holland의

이론, 사회경제적 체제적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고 발달론적 관점은 인간발달 단계에 따라 진로에 관한 정보나 태도, 적성과 직업적 능력이 발달하며 이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Roe의 성격이론, Ginzberg의 직업선택이론, Super이론, 진로성숙이론, 의사결정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적 행동이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외에 Gibson과 Mitchell(1990)은 과정이론, 발달이론, 성격이론, 기회이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보다 최근에는 인지적 정보처리 진로발달이론이 생겨났는데 이 이론은 인지적 정보처리(CIP)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Peterson, Sampson, Reardon(1991)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서 각 개인이 어떻게 진로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정보를 사용하느냐는 측면에서 진로발달에 적용된다(구남희, 1997). 이상과 같이 진로와 관련된 이론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주요 이론적 기초가 되는 Holland이론은 욕구이론(Tolbert, 1980), 심리이론(Herr, Cramer, 1979), 구조이론(George & Cristiani, 1981), 구조론적 관점에서 본 이론(Jepsen, 1984)등으로 다양하게 보고 있다.

2) Holland의 진로유형론

Holland(1985)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특정한 성격이나 환경을 구성하는 수많은 변인의 영향을 받아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즉, 진로선택은 특정 직업적 성격유형에 따른 직업세계에서의 성격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유형은 직업선호도와 자신의 특성과의 일치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각 개인이 자신의 지배적이고 특징적인 경향을 발달시킬 수 있다면 그 지배적인 성향에 대응하는 작업환경에서도 만족하게 되므로 인간은 자신이 선호하는 성격 경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Holland 이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곧 진로선택의 안정성은 성격경향에 주로 달려 있고 각 개인의 상이한 진로유형은 서로 다른 학습사의 결과(Holland, 1985)로 나타난 것이므로 사람과 직무간의 상호작용이 성공과 만족감을 가져오게 됨을 알 수 있다.

Holland의 이론은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진로발달 이론 중에서는 인성에 바탕을 둔 심리이론적 입장과 구조론적 관점(Sepson, 1984)을 취하며 진로 의사결정이론에서는 유형론에 속한다. Holland(1985)는 진로선택을 하게 되는 발달과정에 관한 것보다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이론을 발달시켰다.

사람들은 자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업탐색시에 자신이 타고난 유전적 소질, 문화적, 개인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의 문화적, 개인적 요소란 동료, 부모, 그외에도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인, 사회계층,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및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들은 외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이 환경에 대처할 때 즐겨 사용하는 습관적인 방식, 즉 개인의 독특한 적응방향을 형성하게 되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바로 자신의 적응방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작업환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Holland(1959)는 자신의 이론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을 다음과 같이 6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 표Ⅱ-2 > 6개의 작업환경의 특징 (이정근, 1984. 재인용)

| 범 주 | 특 징 |
|-----------------------------|--|
| 현실적 (realistic)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 성격에 지배를 받음 ▷ 노동자, 농부, 트럭운전기사, 중장비 운전공, 목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작업환경 ▷ 실제적 환경을 하도록 자극함 ▷ 돈, 힘, 소유 등으로 보상함 |
| 지적 (investigative)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색적 성격에 지배를 받음 ▷ 물리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수학자 등 지적 직업에 종사하는 작업환경 ▷ 탐색적 활동을 하도록 자극함 ▷ 과학적 가치의 과시로 보상함 |
| 사회적 (social)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사교적) 성격에 지배를 받음 ▷ 임상 심리학자, 카운슬러, 선교사, 교사, 사회사업가 등 타인을 위한 봉사의 요소가 강한 작업환경 ▷ 사회적(사교적) 활동을 하도록 자극함 ▷ 사회적 가치의 과시로 보상함 |
| 관습적 (conventional)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습적 성격에 지배를 받음 ▷ 우체국 직원, 은행출납계 직원, 비서 등 타인의 의사에 자기를 합치시키고자 하는 요소가 강한 작업환경 ▷ 기록하고 자료를 구조화하는 등의 활동을 자극함 ▷ 전통적 가치(돈, 의존성 등)의 과시로 보상함 |
| 설득적 (enterprising)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적 성격에 지배를 받음 ▷ 세일즈맨, 경매인, 정치가, 바이어, 사회자 등 상대를 설득시키는 요소가 강한 작업환경 ▷ 정치적, 경제적 가치의 과시로 보상함 |
| 심미적 (artistic)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미적, 예술적 성격에 지배를 받음 ▷ 시인, 소설가, 음악가, 조각가, 작곡가, 무대감독, 희곡작가, 미술가 등 예술전반에 걸친 작업환경 ▷ 예술적 활동을 하도록 격려함 ▷ 심미적 가치의 과시로 보상함 |

Hollan의 이론에서의 적응방향은 직업선택에 작용하는 성격특성으로 개인이 평생 동안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이러한 적응방향은 개인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며 우선순위가 높은 적응방향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가장 많이 고려되는 요소이다. 그뿐

만 아니라 각자의 적응방향에 따라 가치관, 흥미, 인간관계유형, 즐겨 수행하는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 Holland는 자신의 이론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작업환경과 마찬가지로 적응방향에서도 다음과 같이 6개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표Ⅱ-3 > 6개의 적응방향의 특징 (이정근, 1984. 재인용)

| 범 주 | 특 징 |
|-------------|---|
| 현실적 적응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나 사람보다는 사물을 더 잘 다룸 ▷ 미래나 과거보다는 현재에 더 관심이 많은 현실적 성격 ▷ 체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즐김 ▷ 공격적이고 운동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음 ▷ 언어능력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모자람 ▷ 추상적인 문제보다는 구체적인 문제를 즐겨 다루려 함 ▷ 대체로 비사교적인 편 ▷ 엔지니어링, 농업, 기술 분야의 직업이 잘 맞음 |
| 지적 적응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능력을 통해서 삶과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분석적이고 추상적이며 탐색적인 성격 ▷ 과업지향적이며 추상적인 일을 즐기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이해하려는 욕구가 강함 ▷ 수학, 과학, 기술 영역 등이 적합함 |
| 사회적 적응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고, 사회적 문제와 인간관계 등에 가치를 크게 두는 사회적 성격 ▷ 안전한 상황에서 일하는 것을 즐기며 언어능력 및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나고 여성적인 동시에 사회지향적이며 남을 가르치거나 치료하는 역할을 좋아함 |
| 관습적 적응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적이며 잘 조직되고 구조화된 일을 잘하는 연습적인 성격 ▷ 틀에 박힌 언어나 수를 취급하는 활동 및 종속적인 역할을 좋아함 ▷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유능하게 일해 나가며 자기가 속한 집단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 일상생활에서 법률, 규칙 등을 잘 지키는 편이라 회계, 비서, 영업, 서기직에 관련이 깊음 |
| 설득적 적응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험적, 지배적, 설득력이 있는 기업적 성격으로 남성적인 면이 강하고 타인을 지배하거나 설득해야 할 경우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함 ▷ 비교적 외향적이고, 권력, 지위에 관심이 많음 ▷ 판매, 타인에게 조언, 안내해주는 지도적 직업이 관련됨 |
| 심미적 적응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과 상상에 의존하는 심미적 성격 ▷ 내향적이고 비사교적이며 예술적 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려는 욕구가 강함 ▷ 음악, 문화, 드라마, 창의적 예술 분야가 적합함 |

이상과 같이 Holland의 진로유형론에 의하면 지금까지 언급된 것처럼 사람들의 행동은 그 개인의 직업적 성격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함수로 표현되며, 직업선택시에는 자신의 성격특성이 개입되고 대개는 자신의 성격특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작업환경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적응방향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택하게 되면 환경에서 제공하는 과업과 개인의 적응능력이 잘 부합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직업선택이 가능하며 높은 직업적 성취, 정서적 안정의 유지, 직업에 대한 만족, 높은 지적 성취 등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Holland의 진로유형론은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와 여러 작업환경에 관한 정보들을 통합된 하나의 이론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직업적 기회와 진로 동기를 갖게 되며, 또 사람들의 직업 만족도와 직업적 성취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해답을 얻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다(안창규, 1997).

이러한 진로유형론은 다음과 같이 개인유형, 환경유형,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몇가지 기본 가정을 제시하고, 이 가정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성격이나 흥미, 능력, 진로의사결정, 행동양식 등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Holland(1992)는 보았다(구남희, 1997. 재인용).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성격유형(Realistic : 실재적, Investigative : 탐구적, Artistic : 예술적, Social : 사회적, Enterprising : 기업적, Conventional : 관습적)중 한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 유전, 부모, 동료, 문화, 물리적 환경 등의 여러 문화적·개인적 영향력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행동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배우게 되고 이 활동들이 자신의 강력한 흥미가 되어 특정한 유능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같은 개인의 흥미와 유능성은 특별한 방법으로 사고하고 지각하며 행동하는 독특한 성격적 특성으로 자리잡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S) 유형에 가까운 사람은 사회적인 문제에 보다 많은 가치를 두며 사회적인 직업을 찾는 경향이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환경적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태도와 기술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문제 및 과제를 접하기도 하고 회피함으로써 각자의 독특한 활동과 기술이나 능력 등을 실현시키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둘째,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환경에도 실재적(R), 탐구적(I), 예술적(A), 사회적(S), 기업적(E), 관습적(C) 등의 6가지 환경모형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각각 주어진 성격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어떤 문제와 기회 등 특수성을 제시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습적인 환경은 관습적인 유형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배된다. 즉, 관습적인 환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모집단의 성격은 관습적인 성격유형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흥미, 포부, 유능성, 성향과 유사한 사람과 사물을 자기주변에 두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흥미, 유능성, 포부 등의 성향을 가진 사람과 사물, 기계 등에 둘러싸이게 되고 이러한 성격유형을 반영하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환경은 그 환경을 구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될 수도 있는데 해당되는 환경내에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유형들의 수를 세어서 그 환경에 속하는 전체 사람수의 비율로 환산하면 환경은 사람의 유형과 같은 6개의 백분율로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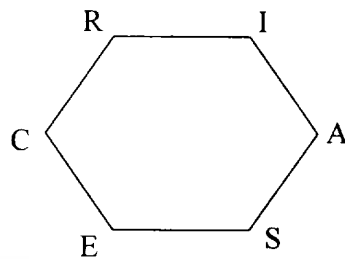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자신의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자기역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찾기 마련이다.

각 성격유형은 자신의 성격유형에 적합한 환경을 찾거나 인간관계나 지지, 연습을 통해서 환경을 찾게 된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유형은 사회적인 환경을, 관습적인 유형은 관습적인 환경을 추구하게 된다. 그의 유형들에 속하는 사람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과 의식수준에서 특정한 환경을

추구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유형에 따른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 진로변경을 하게 된다. 이러한 6가지 유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특징을 제시하면 < 부록1 >과 같다.

넷째, 인간의 행동은 각자의 성격과 환경적 특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로선택, 진로발달, 진로성취, 직무만족 등의 행동결과는 한 개인의 성격패턴과 환경패턴이 얼마나 일치되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견될 수 있다.

다섯째, 6가지 유형과 유형들과의 관계 등을 < 그림 II-3 >과 같이 6각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그림 II-3 > Holland의 육각형 모형

6각형 모형에서 개인의 성격이나 환경의 일관도를 알 수 있는데, 일관도란 어떤 한 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육각형에서 인접해 있는 유형들인 R과 I, E와 S는 일관도가 가장 높으며 서로 대각선상에 있는 R과 S, I와 E는 일관도가 낮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예술적(A) 유형과 사회적 유형(S)은 예술적 유형(A)과 실재적(R) 유형, 예술적 유형(A)과 관습적(C) 유형보다 더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유형들이 6각형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해 있을수록 일관도가 높으며 두 유형의 유사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진로발달과 관련시켜 볼 때 일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진로나 목표에 대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사람들일 경향이 많다.

이러한 Holland의 진로유형론에 바탕을 두고 안창규가 개발한 것(1996)이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이다. 이 검사는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

으로 성격, 흥미 및 능력 등 세가지 영역의 평가를 통하여 Holland의 진로유형인 두 자리의 진로코드를 찾게 되어 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진로지도용 검사와는 달리 검사결과 얻어지는 진로코드는 전공학과, 직업, 가정적, 시민적 역할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적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생애설계를 위한 진로선택 및 상담에 있어서 훌륭한 지침이 되고 있다. 이어서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진로와 관련된 자아개념, 진로의식, 진로정보의 친숙도, 진로탐색, 진로선택, 생애계획 등에 관한 진로발달 및 성숙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안창규가 진로발달검사(1997)를 개발하였다.

초등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요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만한 표준화된 진로검사가 없었는데 진로발달검사가 아동들의 진로적성의 잠재성을 파악하고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에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3. 성격유형과 진로유형

Jung(1971)은 자신의 성격유형이론의 특징은 심리적 경향성의 동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Jung은 특징적인 경향성의 하나로 내향적/외향적이라는 일반적인 태도 개념과 흥미의 방향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의 심리적 기능으로 나누고 이들을 대립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의 심리적 기능을 Hillman(1975)은 '수행하고, 작동하고, 작용하는 어떤 것'으로, 경험의 방향을 잡는 의식의 작용이라 하였다. 또한 직업선택에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는 바로 이 경향성, 즉 선호의 방향인데, 심리적 선호(preference)란 더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활용하는 것이고 선택적으로 더 자주, 많이 쓰는 것이며 선택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 상대적으로 편하고 쉬운 것, 상대적으로 더 쉽게 끌리는 것을 말한다. 직업선택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기능과 태도를 사용할 수 있고 흥미를 만족시킬 수 있고 심리적인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된다(허선자, 1995. 재인용).

Myers와 McCaulley(1985)에 의하면 Jung은 태도라 부르는 외향성과 내향

성을 생활유지를 위해서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적절히 필요하듯 서로 보완하는 태도라고 보았다. 예컨대 외향형은 주체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세계를 과소평가하며, 이를 투사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불평하는 경향이 있다. 외향형은 자기통제 능력이 내향형의 경우보다 낮아서 정신장애 중에서도 히스테리가 많다고 보고가 있고, 반면에 내향형인 경우는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이 두드러진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Myers와 McCaulley(1985)는 자신의 경향성과 직업이 요구하는 경향성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더 많은 피로감과 부적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이현수, 1989).

그러므로 자신의 선호경향과 정반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수행할 때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경향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을 경우보다 선천적인 경향성이 무시되어 심리적 에너지 소모가 더 크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행의 결과가 질적으로 떨어지는 등 심리적인 역기능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므로, 각 개인이 지닌 일처리의 방법은 성격과 적응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Myers(1985)는 일반적으로 성격유형에 따라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경향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네가지 선호경향과 일을 처리하는 경향을 비교해 보면 (김정택, 심혜숙, 1990) 외향형(E)은 다양하고 활동적인 일을 선호하고, 남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관심이 많으며,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내향형(I)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하는 일을 선호하고, 혼자 일에 몰두하며 한가지 일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다. 감각형(S)은 업무나 상황처리에 있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일에 초점을 두고, 관례에 따라 무난히 일처리하는 것을 바라며 단계적으로 일의 결론에 도달하는 반면, 직관형(N)은 새로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게 일의 결론에 이르며, 지나치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사고형(T)은 일처리를 논리적으로 해 나가고, 사람들의 기분보다는 그들의 아이디어에 더 관심이 많으며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

는 반면, 감정형(F)은 일을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처리해 나가고, 사람들의 아이디어보다는 그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더 관심을 가진다. 판단형(J)은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할 때 능률을 올리고, 일을 급히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인식형(P)은 일이 변경되더라도 잘 적응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일은 선천적인 성격유형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직업선택시에 자신의 선천적인 경향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잘 기능하는 한편, 정반대의 경향성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자신이 덜 선호하는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고기능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가 있게 마련이어서 감정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직관 기능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적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감각기능을 잘 발달시킬 수도 있다.

Jung의 유형론에서 주요 경향성은 심리적 기능과 관련성이 있는데 감각/직관, 사고/감정 네가지 심리적 기능은 각각이 하나는 표현형으로, 다른 하나는 무의식화되어 개인의 선호성을 결정한다. 대부분이 자신이 선호하는 일에 더 흥미를 느낄 것이고, 그러한 직업을 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요한 관심을 희생하고 덜 선호하는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직업선택에서 중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을 선택한다. 도전가능성이 있는지 경제적인 보장이 되는지 명예를 얻을 수 있는지, 가족들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 여가가 얼마만큼 보장되는지 등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한하다 하겠다.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편견이나 차별의식의 근원도 세상을 보는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직업선택의 다양성도 바로 이런 특성에서 비롯된다.

개인의 선호성과 주변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족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는데 특정 직업환경에서 개인이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이직율이다. 이직율에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격변인이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할 것이다. Myers는 이 문제와 관련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환경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작업환경을 변화시키는 쪽을 택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비록 이 현상도 성격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애초의 직업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유형을 고려하는 일은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겠다.

직업흥미란 일반적인 흥미와는 다르게 여러 직종 가운데 어떤 특정 직종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관심 및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김충기, 1989). 어떤 직업에 대한 적응이나 성공도는 개인의 능력, 인성적인 자질, 신체적인 특징, 경험, 교양, 의지력, 기타 환경적인 여건 등 제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 직업흥미야말로 직업의 선택과 성공을 결정 지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흥미영역과 검사에 의해 밝혀지는 흥미의 영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특히 심리유형의 특성과 관련시켜 보는 것은 자신의 흥미를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Myers와 MaCaulley(1985)에 의하면 MBTI 심리유형에서 감각-직관(S/N) 차원은 특히 직업흥미 발달과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또, 감각-직관(S/N) 차원은 환경에 반응하고 환경에서 학습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성격유형을 의미한다. 감각형은 세부사항을 집착하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고자 하며, 사실 파악이 빠르고 과거 경험에 의존하며 학습과 반응에 있어서 단계적인 절차를 선호한다. 직관형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습과 반응에 있어서 예감, 감정, 영감, 상상력에 의존한다. 서로 다른 성격유형일 경우에는 흥미 영역도 서로 다르게 발달시킬 것이다. 즉, 감각형의 사람들은 재무관리, 무역, 교육, 간호원 등 실무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데, 직관형의 사람들은 예술, 심리학, 상담 등의 직업에 관심을 갖는다(허선자, 1995. 재인용).

Apostal(1990)은 진로발달 이론의 측면에서 성격유형과 직업흥미와의 관련에 대하여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직업선택에서의 감각-직관 선호성과 Holland의 모형에 입각해 6가지의 직업환경으로 분류된 직업흥미와의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직관형은 지적 흥미와 심미적 흥미와의 정적 상관($r=.24$, $r=.46$), 관습적 흥미와는 부적 상관($r=-.18$)으로 보고되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직관형은 지적 흥미와 심미적 흥미의 경우에만 정적 상관($r=.20$, $r=.35$)을 보였다. 즉, 사상을 다루는 일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관적이면서도 사고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문제 해결자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통찰력이 풍부하다고 지각한다. 사람을 돕는 일에 흥미를 갖는 유형은 감정형이거나 감각적인 감정형(SF)이다. 이 유형들은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주고자 노력한다.

직관형이 예술적 흥미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Holland, 1985 ; Kramer, 1977 ; Nord, 1976) 직관형은 예술적 흥미, 감각형은 금전 출납, 은행업무, 판매직에 관련된 실무적 흥미와 상관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Myers & Myers, 1980). Stricker & Ross(1964)의 연구에서는 MBTI의 각 차원과 Strong 직업흥미검사(SV II)와의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감정형은 안마사·교사·YMCA의 사회사업가·목사·음악가·보험회사 직원·광고 직업인의 경우와 정적 상관이 있다. 사고형은 수학자·물리학자·엔지니어·화학자·생산관리자·회계사·은행원·약사의 경우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허선자, 1995. 재인용).

여섯가지 진로유형 각각의 성격과 좋아하는 직업활동의 특징은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능과 기질에서 살펴볼 수 있다. Hanson(1982)이 살펴본 심리적 기능유형 중 ST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분명하고 체계적인 직업활동을 좋아하는 실재적 유형(R)과, 계획성이 있고 책임감이 강하여 기록·정리·조직하는 일을 좋아하는 관습적 유형(C)과 유사하다. SF는 친절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봉사활동을 선호하는 사회적 유형(S)의 특징을 갖는다. NT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성격

이어서 창조적인 탐구활동에 흥미를 보이는 탐구적 유형(I)의 형태를 보인다. NF는 직관적이고 개성이 강하여 예술적 창조활동을 좋아하는 예술적 유형(A)의 특징을 갖는다.

Murphy-Meisgeir의 기질유형에서 본 SJ는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른 일처리를 좋아하는 관습적 유형(C)의 특징을 갖고 있고, SP는 활기차고 낙관적인 성격을 갖는 기업적 유형(E)과 유사하다. NT는 직관적이면서 지적 탐구심이 많아 창조적 탐구활동을 선호하는 탐구적 유형(I)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NF는 감수성이 강하여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예술적 유형(A)의 특징을 보인다.

위와 같은 고찰에서 볼 때 성격유형과 진로유형은 상호관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가지 선호경향(E-I, S-N, T-F, J-P)과 네가지 기능(ST, SF, NT, NF), 네가지 기질(SP, SJ, NT, NF)의 각 영역과 진로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주안점을 둔다.



Ⅲ. 연구방법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 측정도구, 자료처리 순으로 연구방법을 살펴 보겠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내 P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313명(남 170명, 여 143명)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두가지로 하나는 아동의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아동용 성격유형검사」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이 어떤 진로유형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진로발달검사」이다.

1)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 검사)

성인용 성격유형검사인 MBTI가 Jung의 심리유형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듯이,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역시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1990년 미국의 Meisgeier박사와 Murphy에 의해 개발된 것을 심혜숙과 김정택에 의해 1993년에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검사-재검사에 의한 신뢰도는 E-I 지표 .71, S-N 지표 .75, T-F 지표 .64, J-P 지표 .71이며, 어린이용 성격진단검사(중앙적성출판사)간의 공인타당도는 .58($p < .001$)로 검증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MMTIC 한국어판 검사지는 7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점방식은 손채점과 컴퓨터 채점 모두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채점이 가능한 검사지를 사용했다. 본 검사의 문항구성은 E-I 선호도를

묻는 문항수 16, S-N 선호도를 묻는 문항수 18, T-F 선호도를 묻는 문항수 18, J-P 선호도를 묻는 문항수 18개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방식은 각 문항별로 ㉠에 반응을 하면 E, S, T, J에 해당하고, ㉡에 반응하면 I, N, F, P에 해당한다. 각 선호도별 (E-I, S-N, T-F, J-P)로 채점판을 이용하여 각 선호도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가산한다.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았거나 양쪽 모두 표시되었으면 가산되는 점수를 합해서 2로 나눈 점수를 준다. 계산된 점수는 왼쪽에는 E, S, T, J로, 오른쪽에는 I, N, F, P로 되어 있는 네가지의 연속된 선호도 위에 표시된다. 매우 낮은 점수는 E, S, T, J의 분명한 선호를 나타낼 것이고, 반대로 높은 점수는 I, N, F, P의 선호를 의미한다.

각 척도의 중간에는 네가지 선호성마다 아직도 미분화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 주는 U밴드(Undifferentiated)가 있는데, 이는 양극지표(E-I, S-N, T-F, J-P)에서 가운데 영역에 위치하여 어느 한 곳으로 분류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선호도별 각 유형의 판별점수는 E-I 선호도에서 외향성(E)은 47.7보다 작은 점수이고, 내향성(I)은 52.3보다 큰 점수이고, 외향성과 내향성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는 U밴드이다. S-N 선호도에서 감각형 (S)은 64.4보다 작은 점수이고, 직관형(N)은 69.6보다 큰 점수이고, 감각형과 직관형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는 U밴드이다. T-F 선호도에서 사고형(T)은 61.6보다 작은 점수이고, 감정형(F)은 66.4보다 큰 점수이고, 사고형과 감정형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는 U밴드이다. J-P 선호도에서 판단형(J)은 63.9보다 작은 점수이고, 인식형(P)은 68.1보다 큰 점수이고, 판단형과 인식형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는 U밴드이다.

검사지시를 할 때는 성격유형검사(MMTIC)는 시험이 아니며,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다는 것, 그리고 부모나 선생님에게서 배운대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는대로 답하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2) 진로발달검사

아동의 진로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안창규(1997)가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하여 Holland의 진로이론에 따라 여섯 개의 직업적 성격유형인 RIASEC을 선별적으로 측정할 목적으로 제작하여, 한국 가이드스에서 발행한 진로발달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중고등학교 학생용으로 만들어진 진로탐색검사와 이를 더욱 발전시켜 대학생 및 성인용으로 만들어진 적성 탐색검사와 맥락을 같이 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를 알아보는 70문항과 진로유형을 알아보는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160문항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90문항은 진로유형 R·I·A·S·E·C 척도의 문항수가 각각 15개씩으로, 성격에 관한 25문항, 선호하는 활동과 일에 관한 문항 36문항, 활동과 일에 대한 유능감을 알아보는 29문항이다. 검사지의 문항분석은 검사를 제작한 안창규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 신뢰도를 통해 < 표Ⅲ-1 > 과 같이 .76~.88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안창규, 미발표, 진로발달검사 개발을 위한 연구).

< 표Ⅲ-1 > 진로발달 검사지 신뢰도 검증결과

| 학년 | 성별 | N | R | I | A | S | E | C |
|----|----|------|-----|-----|-----|-----|-----|-----|
| 3 | 전체 | 1335 | .85 | .83 | .81 | .82 | .81 | .81 |
| | 남 | 623 | .81 | .83 | .80 | .79 | .81 | .81 |
| | 여 | 712 | .76 | .82 | .79 | .82 | .81 | .81 |
| 4 | 전체 | 1669 | .85 | .85 | .82 | .84 | .82 | .82 |
| | 남 | 806 | .85 | .84 | .78 | .82 | .81 | .81 |
| | 여 | 863 | .78 | .85 | .82 | .85 | .82 | .83 |
| 5 | 전체 | 4754 | .88 | .87 | .84 | .86 | .84 | .82 |
| | 남 | 2331 | .86 | .87 | .82 | .85 | .84 | .83 |
| | 여 | 2423 | .84 | .86 | .81 | .85 | .84 | .82 |
| 6 | 전체 | 3999 | .88 | .87 | .84 | .85 | .84 | .81 |
| | 남 | 1949 | .85 | .86 | .81 | .84 | .84 | .82 |
| | 여 | 2050 | .83 | .86 | .82 | .85 | .85 | .82 |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했다. 본 연구의 결과처리는 네가지 선호경향 중 명백한 선호성을 나타내지 않는 U밴드가 있는 아동을 포함시킨 313명의 자료와 U밴드를 제외시킨 156명의 자료로 나누어 하였다.

우선 성격검사와 진로유형에서 나타난 전체 분포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U밴드를 포함한 313명의 네가지 선호경향과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U밴드를 제외한 156명의 네가지 선호경향과 진로유형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증을 했다.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U밴드를 포함한 313명의 기능과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U밴드를 제외한 156명의 기능과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을 위해서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U밴드를 포함한 313명의 기질과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U밴드를 제외한 156명의 기질과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을 위해서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IV. 결과 및 해석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성격유형의 네가지 지표별 분포와 16가지 성격유형 분포, 네가지 기능 및 기질별 분포 그리고 여섯가지 진로유형의 평균을 제시한후 각 가설을 검증하였다.

1. 기본통계치

여기에서는 연구대상 전체 성격유형의 네가지 지표별 분포와 U밴드를 제외한 각 지표별 분포, 16가지 성격유형 분포, 각 기능 및 기질별 분포를 제시했다.

< 표IV-1 > U밴드를 포함한 지표별 선호 분포도

| 선호경향 성별 | E U I | | | S U N | | | T U F | | | J U P | | | 계 |
|------------|-------|------|------|-------|------|------|-------|------|------|-------|------|------|-------|
| 남학생 | 125 | 21 | 24 | 34 | 51 | 85 | 10 | 21 | 139 | 35 | 29 | 106 | 170 |
| % | 73.5 | 12.4 | 14.1 | 20.0 | 30.0 | 50.0 | 5.9 | 12.4 | 81.8 | 20.6 | 17.1 | 62.4 | 54.3 |
| 여학생 | 114 | 20 | 9 | 44 | 40 | 59 | 8 | 7 | 128 | 13 | 28 | 102 | 143 |
| % | 79.7 | 14.0 | 6.3 | 30.8 | 28.0 | 41.3 | 5.6 | 4.9 | 89.5 | 9.1 | 19.6 | 71.3 | 45.7 |
| 계 | 239 | 41 | 33 | 78 | 91 | 144 | 18 | 28 | 267 | 48 | 57 | 208 | 313 |
| % | 76.4 | 13.1 | 10.5 | 24.9 | 29.1 | 46.0 | 5.8 | 8.9 | 85.3 | 15.3 | 18.2 | 66.5 | 100.0 |

< 표IV-1 >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의 U밴드의 비율은 E-I 지표에서는 13.1%, S-N 지표에서는 29.1%, T-F 지표에서는 8.9%, J-P 지표에서는 18.2% 이고, 한국판 표준화에서의 U밴드 비율은 E-I 지표에서는 32.4%, S-N 지표에

서는 24.8%, T-F 지표에서는 17.7%, J-P 지표에서는 19.0%이다.

본 연구와 한국판 표준화가 이러한 비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와 한국판 표준화에서의 지역과 대상의 연령차 때문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제주 소재 초등학교 4, 5, 6학년 313명을 대상으로 했고, 한국판 표준화는 부산, 서울지역의 만 9세에서 만 13세까지의 26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이것은 어린이는 자기가 타고난 경향을 상황의 구별없이 쓰는 가운데 그 경향에 더욱 익숙해져 간다고 보고, 경향의 발달은 일생을 통해 계속된다고 말한 Borbely와 Schemel(1982)의 연구, Clark·Grant와 Thompson(198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 말은 아동의 선호경향은 발달중에 있으므로, 성장하면서 미분화된 성격유형을 분화시켜 선호지표에서 뚜렷한 선호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이순자, 1997)는 것이다.

전체 표집 313명 중에서 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에 사용된 표집으로서, 각 지표에서 U밴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네가지 선호성 지표가 뚜렷이 나타난 156명의 유형 분포도를 < 표IV-2 >에 제시하였다.

< 표IV-2 > U밴드를 제외한 지표별 선호 분포도

| 성별 \ 선호경향 | E | I | S | N | T | F | J | P | 계 |
|-----------|------|------|------|------|-----|------|------|------|-------|
| 남학생 | 69 | 14 | 19 | 64 | 4 | 79 | 17 | 66 | 83 |
| % | 83.1 | 16.9 | 22.9 | 77.1 | 4.8 | 95.2 | 20.5 | 79.5 | 53.2 |
| 여학생 | 67 | 6 | 29 | 44 | 4 | 69 | 9 | 64 | 73 |
| % | 91.8 | 8.2 | 39.7 | 60.3 | 5.6 | 94.5 | 12.3 | 87.7 | 46.3 |
| 계 | 136 | 20 | 48 | 108 | 8 | 148 | 26 | 130 | 156 |
| % | 87.2 | 12.8 | 30.8 | 69.2 | 5.1 | 94.9 | 16.7 | 83.3 | 100.0 |

< 표IV-2 >에 의하면, E-I지표에서는 외향형이 87.2%로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인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외향형(66%)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S-N지표에서는 69.2%가 직관형으로 나타나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검사인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직관형(53.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T-F지표에서는 감정형의 비율이 94.9%로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인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감정형(86.5%)보다 높게 나타났다. J-P지표에서는 인식형의 비율이 83.3%로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인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인식형(82.0%)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 표집 313명 중에서 U밴드를 제외한 156명의 16가지 성격유형의 분포도를 < 표IV-3 >에서 제시하였다.

< 표IV-3 > 16가지 성격유형 분포도

| 유형 | N | % | 유형 | N | % | 유형 | N | % | 유형 | N | % |
|------|---|------|------|----|------|------|---|------|------|----|-------|
| ISTJ | 1 | 0.65 | ISFJ | 0 | 0.0 | ISTP | 1 | 0.65 | ISFP | 3 | 1.92 |
| INTJ | 0 | 0.0 | INFJ | 1 | 0.65 | INTP | 1 | 0.65 | INFP | 13 | 8.33 |
| ESTJ | 1 | 0.65 | ESFJ | 14 | 8.98 | ESTP | 1 | 0.65 | ESFP | 27 | 17.31 |
| ENTJ | 1 | 0.65 | ENFJ | 8 | 5.13 | ENTP | 2 | 1.28 | ENFP | 82 | 52.56 |

< 표IV-3 >에 의하면 아동의 69.87%가 ENFP(52.56%), ESFP(17.31%)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인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비율(52.7%가 ENFP, ESFP) 50% 이상이 ENFP, ESFP 유형이라는 사실과 같다. 기능 및 기질별 분포도는 < 표IV-4 >에 제시하였다.

< 표IV-4 >에 의하면, 기능별 분포는 NF(105명), SF(43명), ST(4명), NT(4명) 순이며, 기질별 분포는 NF(105명), SP(32명), SJ(15명), NT(4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별 분포에서 ST와 NT는 차이가 없었다.

< 표IV-4 > 기능 및 기질별 분포도

| 변 수 | | N | % |
|-----|----|-----|-------|
| 기능별 | ST | 4 | 2.6 |
| | SF | 43 | 27.6 |
| | NT | 4 | 2.6 |
| | NF | 105 | 67.3 |
| 기질별 | SP | 32 | 20.5 |
| | SJ | 15 | 9.6 |
| | NT | 4 | 2.6 |
| | NF | 105 | 67.3 |
| 계 | | 156 | 100.0 |

전체 표집 313명의 진로유형의 평균값은 < 표IV-5 >와 같았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유형 중 실재적 유형(R)과 탐구적 유형(I), 기업적 유형(E), 관습적 유형(C)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고, 예술적 유형(A)과 사회적 유형(S)에서는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유형(S)이 가장 높았고 실재적 유형(R)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표IV-5 > 여섯가지 진로유형의 평균

| 진로유형 성별 | R | I | A | S | E | C |
|------------|-------|-------|-------|-------|-------|-------|
| 남 (N=170) | 53.98 | 54.06 | 48.26 | 55.25 | 50.87 | 52.64 |
| 여 (N=143) | 39.59 | 47.01 | 52.58 | 61.62 | 49.88 | 51.43 |
| 계 (N=313) | 47.41 | 50.84 | 50.23 | 58.16 | 50.42 | 52.09 |

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가설에 기초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성격유형의 네가지 선호경향(E-I, S-N, T-F, J-P)은 진로유형(R, I, A, S, E, C)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a. 외향성향(E)을 지닌 집단과 내향성향(I)을 지닌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표IV-6 > E-I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포함)

| 진로유형 | 선호경향 | N | M | SD | F |
|------------|------|-----|-------|-------|---------|
| 실재적 (R) | E | 239 | 47.55 | 17.84 | 0.057 |
| | I | 33 | 46.46 | 17.69 | |
| | U | 41 | 47.34 | 15.65 | |
| 탐구적 (I) | E | 239 | 51.63 | 15.75 | 1.329 |
| | I | 33 | 47.84 | 14.76 | |
| | U | 41 | 48.63 | 15.17 | |
| 예술적 (A) | E | 239 | 50.92 | 14.86 | 1.471 |
| | I | 33 | 46.36 | 14.33 | |
| | U | 41 | 49.34 | 14.37 | |
| 사회적 (S) | E | 239 | 59.77 | 15.00 | 6.842** |
| | I | 33 | 50.79 | 14.66 | |
| | U | 41 | 54.66 | 11.91 | |
| 기업적 (E) | E | 239 | 51.41 | 15.08 | 2.847 |
| | I | 33 | 45.18 | 10.74 | |
| | U | 41 | 48.80 | 15.95 | |
| 관습적 (C) | E | 239 | 53.00 | 15.09 | 2.355 |
| | I | 33 | 47.30 | 15.84 | |
| | U | 41 | 50.59 | 13.18 | |

** p < .01

U밴드를 포함한 성격유형의 E-I 선호경향과 진로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 표IV-6 >에 제시하였다.

< 표IV-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유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유형에서 E(M=47.55), U(M=47.34), I(M=46.4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의 의미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분석한 결과 F 값이 6.842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U밴드를 제외한 성격유형의 E-I 선호경향과 진로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E선호도 집단과 I선호도 집단의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를 < 표IV-7 >에 제시하였다. < 표IV-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유형($t=3.12, p < .01$), 기업적 유형($t=2.07, p < .05$), 관습적 유형($t=2.93, p < .01$)에서만 E선호도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표IV-7 > E-I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제외)

| 진로유형 | E(N=136) | | I(N=20) | | t |
|--------|----------|-------|---------|-------|--------|
| | M | SD | M | SD | |
| 실재적(R) | 48.41 | 18.35 | 44.85 | 18.17 | .81 |
| 탐구적(I) | 53.15 | 15.60 | 48.90 | 16.55 | 1.13 |
| 예술적(A) | 51.24 | 13.46 | 45.70 | 14.23 | 1.71 |
| 사회적(S) | 61.15 | 14.51 | 50.05 | 17.14 | 3.12** |
| 기업적(E) | 51.96 | 14.68 | 44.90 | 10.87 | 2.07* |
| 관습적(C) | 53.42 | 14.55 | 43.10 | 15.77 | 2.93** |

* $p < .05$ ** $p < .01$

이러한 결과로 E선호경향의 아동이 I선호경향의 아동에 비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봉사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적 유형과 통솔력·지도력이 있고 낙관적인 성격을 띠는 기업적 유형, 실천적이고 능률적인 성격을 띠는 관습적 유형의 진로유형을 선호할 것이라 볼 수 있다.

1-b. 감각성향(S)을 지닌 집단과 직관성향(N)을 지닌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U밴드를 포함한 성격유형의 S-N 선호경향과 진로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 표IV-8 >에 제시하였다.

< 표IV-8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재적, 탐구적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실재적 유형에서 N(M=50.39), U(M=46.45), S(M=43.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의 의미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분석한 결과 F값이 4.781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탐구적 유형에서 N(M=53.35), U(M=49.90), S(M=47.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의 의미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분석한 결과 F값이 4.134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표IV-8 > S-N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포함)

| 진로유형 | 선호경향 | N | M | SD | F |
|------|------|-----|-------|-------|---------|
| 실재적 | S | 78 | 43.03 | 16.24 | 4.781** |
| | N | 144 | 50.39 | 18.11 | |
| | U | 91 | 46.45 | 16.85 | |
| 탐구적 | S | 78 | 47.30 | 14.40 | 4.134* |
| | N | 144 | 53.35 | 15.57 | |
| | U | 91 | 49.90 | 16.08 | |
| 예술적 | S | 78 | 47.67 | 14.60 | 1.691 |
| | N | 144 | 51.45 | 14.19 | |
| | U | 91 | 50.51 | 15.66 | |
| 사회적 | S | 78 | 56.67 | 16.02 | 1.098 |
| | N | 144 | 59.48 | 14.59 | |
| | U | 91 | 57.34 | 14.28 | |
| 기업적 | S | 78 | 48.13 | 15.18 | 1.349 |
| | N | 144 | 51.56 | 14.35 | |
| | U | 91 | 50.57 | 15.45 | |
| 관습적 | S | 78 | 51.58 | 15.34 | 0.078 |
| | N | 144 | 52.11 | 15.36 | |
| | U | 91 | 52.50 | 14.26 | |

* $p < .05$ ** $p < .01$

U밴드를 제외한 성격유형의 S-N 선호경향과 진로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선호도 집단과 N선호도 집단의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를 < 표IV-9 >에 제시하였다. < 표IV-9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재적 유형($t=-2.05, p<.05$), 탐구적 유형($t=-2.30, p<.05$)에서만 N선호도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표IV-9 > S-N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제외)

| 진로유형 | S(N=48) | | N(N=108) | | t |
|--------|---------|-------|----------|-------|--------|
| | M | SD | M | SD | |
| 실재적(R) | 43.48 | 17.45 | 49.93 | 18.40 | -2.05* |
| 탐구적(I) | 48.31 | 15.16 | 54.51 | 15.67 | -2.30* |
| 예술적(A) | 48.81 | 13.48 | 51.29 | 13.70 | -1.05 |
| 사회적(S) | 57.81 | 16.19 | 60.58 | 14.85 | -1.05 |
| 기업적(E) | 49.94 | 15.06 | 51.55 | 14.16 | -0.64 |
| 관습적(C) | 51.75 | 15.07 | 52.25 | 15.12 | -0.19 |

* $p < .05$



U밴드를 포함한 자료와 U밴드를 제외한 자료의 결과가 똑같이 N선호도 집단이 실재적 유형과 탐구적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N선호경향의 아동이 S선호경향의 아동에 비해 지적 호기심이 많고, 탐구활동에 흥미를 보이는 탐구적 유형과 전문성, 유능성을 가치로 두는 실재적 유형의 진로유형을 선호할 것이라 볼 수 있다.

1-c. 사고성향(T)을 지닌 집단과 감정성향(F)을 지닌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U밴드를 포함한 성격유형의 T-F 선호경향과 진로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 표IV-10 >에 제시하였다.

< 표IV-10 > T-F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포함)

| 진로유형 | 선호경향 | N | M | SD | F |
|------------|------|-----|-------|-------|--------|
| 실재적 (R) | T | 18 | 48.33 | 18.02 | 1.221 |
| | F | 267 | 46.84 | 17.33 | |
| | U | 28 | 52.21 | 18.71 | |
| 탐구적 (I) | T | 18 | 52.11 | 19.66 | 0.341 |
| | F | 267 | 50.54 | 15.34 | |
| | U | 28 | 52.86 | 15.59 | |
| 예술적 (A) | T | 18 | 51.67 | 15.27 | 0.373 |
| | F | 267 | 50.36 | 14.54 | |
| | U | 28 | 48.14 | 16.86 | |
| 사회적 (S) | T | 18 | 51.06 | 15.07 | 3.461* |
| | F | 267 | 59.03 | 14.81 | |
| | U | 28 | 54.39 | 14.01 | |
| 기업적 (E) | T | 18 | 54.61 | 18.08 | 0.805 |
| | F | 267 | 50.25 | 14.60 | |
| | U | 28 | 49.32 | 15.65 | |
| 관습적 (C) | T | 18 | 55.06 | 15.94 | 0.377 |
| | F | 267 | 51.88 | 15.08 | |
| | U | 28 | 52.18 | 13.92 | |

* $p < .05$

< 표IV-9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유형에서 F(M=59.03), U(M=54.39), T(M=51.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의 의미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분석한 결과 F값이 3.461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U밴드를 제외한 성격유형의 T-F 선호경향과 진로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선호도 집단과 F선호도 집단의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를 < 표IV-11 >에 제시하였다. < 표IV-1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유형

($t=-2.92$, $p<.01$)에서만 F선호도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표IV-11 > T-F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제외)

| 진로유형 | T(N=8) | | F(N=148) | | t |
|--------|--------|-------|----------|-------|---------|
| | M | SD | M | SD | |
| 실재적(R) | 47.75 | 21.63 | 47.95 | 18.20 | -0.03 |
| 탐구적(I) | 53.38 | 20.81 | 52.60 | 15.50 | 0.14 |
| 예술적(A) | 51.75 | 18.34 | 50.46 | 13.42 | 0.26 |
| 사회적(S) | 44.75 | 16.52 | 60.54 | 14.84 | -2.92** |
| 기업적(E) | 55.13 | 18.05 | 50.83 | 14.23 | 0.82 |
| 관습적(C) | 51.88 | 14.94 | 52.11 | 15.12 | -0.04 |

** $p<.01$

U밴드를 포함한 자료와 U밴드를 제외한 자료의 결과가 똑같이 F선호도 집단이 사회적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F선호경향의 아동이 T선호경향의 아동에 비해 이해심이 많고, 남을 잘 도와주는 감정적인 성격특성을 갖는 사회적 유형의 진로유형을 선호할 것이라 볼 수 있다.

1-d. 판단성향(J)을 지닌 집단과 인식성향(P)을 지닌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U밴드를 포함한 성격유형의 J-P 선호경향과 진로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 표IV-12 >에 제시하였다.

< 표IV-1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J-P 선호경향과 진로유형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 표IV-12 > J-P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포함)

| 진로유형 | 선호경향 | N | M | SD | F |
|------------|------|-----|-------|-------|-------|
| 실재적 (R) | J | 48 | 52.71 | 16.10 | 2.647 |
| | P | 208 | 46.33 | 17.87 | |
| | U | 57 | 46.88 | 16.73 | |
| 탐구적 (I) | J | 48 | 51.71 | 14.66 | 0.286 |
| | P | 208 | 51.00 | 15.89 | |
| | U | 57 | 49.53 | 15.45 | |
| 예술적 (A) | J | 48 | 53.50 | 13.45 | 1.391 |
| | P | 208 | 49.64 | 14.25 | |
| | U | 57 | 49.65 | 17.37 | |
| 사회적 (S) | J | 48 | 56.35 | 12.81 | 0.486 |
| | P | 208 | 58.66 | 15.25 | |
| | U | 57 | 57.83 | 15.21 | |
| 기업적 (E) | J | 48 | 52.08 | 13.42 | 0.356 |
| | P | 208 | 50.08 | 14.60 | |
| | U | 57 | 50.23 | 17.17 | |
| 관습적 (C) | J | 48 | 55.33 | 13.73 | 2.382 |
| | P | 208 | 50.81 | 14.58 | |
| | U | 57 | 54.04 | 17.05 | |

U밴드를 제외한 성격유형의 J-P 선호경향과 진로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J선호도 집단과 P선호도 집단의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를 < 표IV-13 >에 제시하였다. < 표IV-1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유형에서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IV-13 > J-P 지표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제외)

| 진로유형 | J(N=26) | | P(N=130) | | t |
|--------|---------|-------|----------|-------|-------|
| | M | SD | M | SD | |
| 실재적(R) | 51.50 | 17.95 | 47.23 | 18.36 | 1.08 |
| 탐구적(I) | 52.65 | 16.46 | 52.59 | 15.65 | 0.02 |
| 예술적(A) | 51.46 | 15.50 | 50.34 | 13.29 | 0.38 |
| 사회적(S) | 56.62 | 16.03 | 60.35 | 15.11 | -1.14 |
| 기업적(E) | 51.73 | 15.02 | 50.92 | 14.35 | 0.26 |
| 관습적(C) | 54.35 | 15.32 | 51.67 | 15.03 | 0.83 |

U밴드를 포함한 자료와 U밴드를 제외한 자료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J-P 선호경향이 선호된 심리기능 중 어느 기능이 주기능이며, 어느 기능이 부기능인지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생활양식의 척도이기 때문에 진로유형 선호도에 있어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능(ST, SF, NT, NF)간에는 진로유형(R, I, A, S, E, C)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U밴드를 포함한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능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IV-1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재적, 탐구적, 사회적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실재적 유형에서 NT(M=59.80), NF(M=49.28), U(M=47.83), SF(M=43.19), ST(M=36.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

미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분석한 결과 F값이 2.704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표 IV-14 > 기능유형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포함)

| 진로유형 | 기능유형 | N | M | SD | F |
|------------|------|-----|-------|-------|--------|
| 실재적 (R) | ST | 8 | 36.75 | 19.26 | 2.704* |
| | SF | 62 | 43.19 | 15.82 | |
| | NT | 5 | 59.80 | 4.55 | |
| | NF | 127 | 49.28 | 18.17 | |
| | U | 111 | 47.83 | 17.28 | |
| 탐구적 (I) | ST | 8 | 44.13 | 20.56 | 2.612* |
| | SF | 62 | 46.79 | 13.31 | |
| | NT | 5 | 57.40 | 14.08 | |
| | NF | 127 | 53.45 | 15.58 | |
| | U | 111 | 50.31 | 16.02 | |
| 예술적 (A) | ST | 8 | 51.63 | 17.19 | 0.776 |
| | SF | 62 | 47.42 | 13.13 | |
| | NT | 5 | 49.60 | 14.71 | |
| | NF | 127 | 51.38 | 14.17 | |
| | U | 111 | 50.42 | 16.12 | |
| 사회적 (S) | ST | 8 | 46.75 | 12.94 | 2.752* |
| | SF | 62 | 58.47 | 15.85 | |
| | NT | 5 | 48.60 | 18.08 | |
| | NF | 127 | 60.39 | 14.57 | |
| | U | 111 | 56.68 | 14.18 | |
| 기업적 (E) | ST | 8 | 47.25 | 17.45 | 0.759 |
| | SF | 62 | 48.15 | 14.20 | |
| | NT | 5 | 56.00 | 20.04 | |
| | NF | 127 | 51.38 | 14.22 | |
| | U | 111 | 50.56 | 15.68 | |
| 관습적 (C) | ST | 8 | 48.75 | 14.21 | 0.11 |
| | SF | 62 | 52.05 | 15.92 | |
| | NT | 5 | 51.60 | 13.33 | |
| | NF | 127 | 52.08 | 15.49 | |
| | U | 111 | 52.39 | 14.23 | |

* $p < .05$

탐구적 유형에서는 NT(M=57.40), NF(M=53.45), U(M=50.31), SF(M=46.79), ST(M=44.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분석한 결과 F값이 2.612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유형에서 NF(M=60.39), SF(M=58.47), U(M=56.68), NT(M=48.60), ST(M=46.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분석한 결과 F값이 2.752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U밴드를 제외한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능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 표IV-15 >에 제시하였다.

< 표IV-15 > 기능유형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제외)

| 진로유형 | 기능유형 | N | M | SD | F |
|------------|------|-----|-------|-------|-------|
| 실재적 (R) | ST | 4 | 35.00 | 25.17 | 2.38 |
| | SF | 43 | 43.84 | 16.75 | |
| | NT | 4 | 60.50 | 4.93 | |
| | NF | 105 | 49.64 | 18.57 | |
| 탐구적 (I) | ST | 4 | 45.00 | 26.18 | 2.53 |
| | SF | 42 | 47.67 | 13.79 | |
| | NT | 4 | 61.75 | 11.76 | |
| | NF | 105 | 54.43 | 15.84 | |
| 예술적 (A) | ST | 4 | 51.50 | 23.12 | 0.50 |
| | SF | 43 | 48.35 | 12.73 | |
| | NT | 4 | 52.00 | 15.81 | |
| | NF | 105 | 51.32 | 13.65 | |
| 사회적 (S) | ST | 4 | 41.25 | 13.00 | 3.09* |
| | SF | 42 | 58.98 | 15.90 | |
| | NT | 4 | 48.25 | 20.85 | |
| | NF | 105 | 61.03 | 14.44 | |
| 기업적 (E) | ST | 4 | 52.00 | 15.25 | 0.53 |
| | SF | 43 | 49.47 | 15.27 | |
| | NT | 4 | 58.25 | 22.40 | |
| | NF | 105 | 51.39 | 13.82 | |
| 관습적 (C) | ST | 4 | 48.00 | 18.94 | 0.18 |
| | SF | 43 | 51.86 | 14.99 | |
| | NT | 4 | 55.75 | 11.06 | |
| | NF | 105 | 52.21 | 15.24 | |

* $p < .05$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능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진로유형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사회적 유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형에서 NF(M=61.03), SF(M=58.98), NT(M=48.25), ST(M=41.2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네 집단의 의미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분석한 결과 F값이 3.09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로 네가지 기능 중 가장 정서적 민감성을 보이는 NF형, 인간적인 유대감·협조적 분위기를 선호하는 SF형의 아동이 사회적 유형을 선호할 것이라 볼 수 있다.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질(SP, SJ, NT, NF)간에는 진로유형(R, I, A, S, E, C)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U밴드를 포함한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질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질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진로유형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 표IV-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U밴드를 제외한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질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 표IV-17 >에 제시하였다.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질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진로유형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 표IV-1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재적 유형과 탐구적 유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재적 유형에서는 NT(M=60.50), NF(M=49.64), SJ(M=49.13), SP(M=40.25)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네 집단의 의미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분석한 결과 F값이 2.94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탐구적 유형에서는 NT(M=61.75), NF(M=54.43), SJ(M=50.80), SP(M=46.31)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네 집단의 의미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분석한 결과 F값이 2.79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표IV-16 > 기질유형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포함)

| 진로유형 | 기질유형 | N | M | SD | F |
|------------|------|-----|-------|-------|-------|
| 실재적 (R) | SP | 40 | 41.93 | 16.16 | 2.122 |
| | SJ | 18 | 49.06 | 17.15 | |
| | NT | 5 | 59.80 | 4.55 | |
| | NF | 127 | 49.28 | 18.17 | |
| | U | 123 | 46.51 | 17.22 | |
| 탐구적 (I) | SP | 40 | 46.73 | 15.29 | 2.161 |
| | SJ | 18 | 50.67 | 12.07 | |
| | NT | 5 | 57.40 | 14.08 | |
| | NF | 127 | 53.45 | 15.58 | |
| | U | 123 | 49.24 | 15.89 | |
| 예술적 (A) | SP | 40 | 47.23 | 15.50 | 0.61 |
| | SJ | 18 | 49.89 | 12.72 | |
| | NT | 5 | 49.60 | 14.71 | |
| | NF | 127 | 51.38 | 14.17 | |
| | U | 123 | 50.11 | 15.48 | |
| 사회적 (S) | SP | 40 | 57.63 | 16.92 | 1.718 |
| | SJ | 18 | 54.72 | 14.29 | |
| | NT | 5 | 48.60 | 18.08 | |
| | NF | 127 | 60.39 | 14.57 | |
| | U | 123 | 56.91 | 14.23 | |
| 기업적 (E) | SP | 40 | 49.88 | 16.73 | 0.464 |
| | SJ | 18 | 48.72 | 12.41 | |
| | NT | 5 | 56.00 | 20.04 | |
| | NF | 127 | 51.38 | 14.22 | |
| | U | 123 | 49.62 | 15.21 | |
| 관습적 (C) | SP | 40 | 50.95 | 16.09 | 0.083 |
| | SJ | 18 | 51.94 | 9.72 | |
| | NT | 5 | 51.60 | 13.33 | |
| | NF | 127 | 52.08 | 15.49 | |
| | U | 123 | 52.51 | 15.00 | |

< 표IV-17 > 기질유형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 (U밴드 제외)

| 진로유형 | 기질유형 | N | M | SD | F |
|------------|------|-----|-------|-------|-------|
| 실재적 (R) | SP | 32 | 40.25 | 16.52 | 2.94* |
| | SJ | 15 | 49.13 | 18.33 | |
| | NT | 4 | 60.50 | 4.93 | |
| | NF | 105 | 49.64 | 18.57 | |
| 탐구적 (I) | SP | 32 | 46.31 | 15.61 | 2.79* |
| | SJ | 15 | 50.80 | 12.87 | |
| | NT | 4 | 61.75 | 11.76 | |
| | NF | 105 | 54.43 | 15.84 | |
| 예술적 (A) | SP | 32 | 47.94 | 13.94 | 0.52 |
| | SJ | 15 | 50.07 | 13.04 | |
| | NT | 4 | 52.00 | 15.81 | |
| | NF | 105 | 51.32 | 13.65 | |
| 사회적 (S) | SP | 32 | 58.78 | 17.00 | 1.4 |
| | SJ | 15 | 55.73 | 15.28 | |
| | NT | 4 | 48.25 | 20.85 | |
| | NF | 105 | 61.03 | 14.44 | |
| 기업적 (E) | SP | 32 | 49.69 | 16.62 | 0.49 |
| | SJ | 15 | 49.67 | 11.82 | |
| | NT | 4 | 58.25 | 22.40 | |
| | NF | 105 | 51.39 | 13.82 | |
| 관습적 (C) | SP | 32 | 51.41 | 17.09 | 0.1 |
| | SJ | 15 | 51.80 | 10.42 | |
| | NT | 4 | 55.75 | 11.06 | |
| | NF | 105 | 52.21 | 15.24 | |

* p< .05

U밴드를 포함한 자료에서는 어느 진로유형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U밴드를 제외한 자료에서는 실재적 유형과 탐구적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네가기 기질 중 비사교적이면 서도 지적 호기심이 강한 NT, 직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NF형이 진로유형 중 실재적 유형과 탐구적 유형을 선호할 것이라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진로유형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각 성격유형에 적절한 진로유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성격유형에 알맞은 효과적인 진로교육 실시와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성격유형의 네가지 선호경향(E-I, S-N, T-F, J-P)은 진로유형(R, I, A, S, E, C)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능(ST, SF, NT, NF)은 진로유형(R, I, A, S, E, C)에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질(SP, SJ, NP, NF)은 진로유형(R, I, A, S, E, C)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성격유형의 네가지 선호경향은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a. 외향성향(E)을 지닌 집단과 내향성향(I)을 지닌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b. 감각성향(S)을 지닌 집단과 직관성향(N)을 지닌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c. 사고성향(T)을 지닌 집단과 감정성향(F)을 지닌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d. 판단성향(J)을 지닌 집단과 인식단성향(P)을 지닌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능은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a. 네가지 기능에 따라 분류된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성격유형의 네가지 기질은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a. 네가지 기질에 따라 분류된 집단간에는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시에 있는 P초등학교 4, 5, 6학년 313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MMTIC 검사를, 아동의 진로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발달검사를 사용하여 본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네가지 선호경향 중 명백한 선호성을 나타내지 않는 U밴드를 포함시킨 전체 313명의 자료와 U밴드를 제외시킨 156명의 자료로 나누어 SPSS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가지 선호경향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에서 E-I 지표에서 U밴드를 포함한 자료에서는 사회적 유형에서만 E(M=47.55), U(M=47.34), I(M=46.46)의 순으로(F=6.842, $p<.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U밴드를 제외한 자료에서는 외향형(E)이 진로유형 중 사회적 유형($t=3.12$, $p<.01$), 기업적 유형($t=2.07$, $p<.05$), 관습적 유형($t=2.93$,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S-N지표에서 U밴드를 포함한 자료에서는 실재적 유형에서 N(M=50.39), U(M=46.45), S(M=43.03)의 순으로 (F=4.781, $p<.01$), 탐구적 유형에서 N(M=53.35), U(M=49.90), S(M=47.30)의 순으로 (F=4.134, $p<.05$)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U밴드를 제외한 자료에서는 직관형(N)이 실재적 유형($t=-2.05$, $p<.05$)과 탐구적 유형($t=-2.30$,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F지표에서 U밴드를 포함한 자료에서는 사회적 유형에서 F(M=59.03), U(M=54.39), T(M=51.06)의 순으로 (F=3.461, $p<.05$)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U밴드를 제외한 자료에서는 감정형(F)이 사회적 유형($t=-2.92$,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J-P지표에서는 U밴드를 포함한 자료와 U밴드를 제외시킨 자료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네가지 기능(ST, SF, NT, NF)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에서 U밴드를 포함한 자료에서는 실재적 유형에서 NT(M=59.80), NF(M=49.28), U(M=47.83), SF(M=43.19), ST(M=36.75) 순으로 ($F=2.704, p<.05$), 탐구적 유형에서 NT(M=57.40), NF(M=53.45), U(M=50.31), SF(M=46.79), ST(M=44.13) 순으로 ($F=2.612, p<.05$), 사회적 유형에서 NF(M=60.39), SF(M=58.47), U(M=56.68), NT(M=48.60), ST(M=46.75) 순으로 ($F=2.752, p<.05$)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U밴드를 제외한 자료에서는 사회적 유형에서 NF(M=61.03), SF(M=58.98), NT(M=48.25), ST(M=41.25)의 순으로($F=3.09,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네가지 기질(SP, SJ, NT, NF)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검증에서 U밴드를 포함한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U밴드를 제외한 자료에서는 실재적 유형에서 NT(M=60.50), NF(M=49.64), SJ(M=49.13), SP(M=40.25) 순으로($F=2.94, p<.05$), 탐구적 유형에서 NT(M=61.75), NF(M=54.43), SJ(M=50.80), SP(M=46.31) 순으로($F=2.79, p<.05$)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성격유형에 따라 진로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가 증명이 되었다.

2.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유형에 따라 진로유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므로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아동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유형을 탐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네가지 선호경향과 네가지 기능, 네가지 기질을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알아내어 성격유형에 맞는

진로유형을 아동과 교사·부모가 인식한다면 중·고등학교에서의 진로선택에도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U밴드를 포함했을 경우와 제외시켰을 경우의 결과가 비슷하므로 네가지 선호경향 모두가 뚜렷하지 않은 아동도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유형을 탐색하는데 포함해야 한다. 성격유형에서 뚜렷한 선호경향을 보이지 않는 U밴드가 네가지 선호경향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개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뚜렷하게 나타난 선호경향을 중심으로 진로유형을 탐색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나타난 뚜렷한 선호경향을 중심으로 성격에 맞는 진로유형을 탐색하도록 초등학교의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정한 성격유형과 진로유형과는 높은 관련이 나타나므로 특히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유형 탐색에서 외향형인 경우에는 사회적 유형으로, 직관형인 경우에는 실제적 유형과 탐구적 유형, 감정형인 경우에는 사회적 유형쪽으로 진로탐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성격의 네가지 기능 중 F가 들어가 있는 NF, SF형인 경우에는 사회적 유형쪽으로 탐색한다면 이러한 성격의 아동들은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진로유형을 현명하게 선택한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몇가지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성격유형에서 나타나는 진로유형의 차이를 연구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성격유형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격유형 외에 아동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을 변인으로 추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내용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MMTIC 검사와 진로탐색검사

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MBTI 검사와 진로탐색검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순화(1988),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실시를 위한 시험적 일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4권,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강순화, 이은순(1990),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6권,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구남희(1997), "Holland의 진로유형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특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수자(1991),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고교생의 진로성숙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영숙(1993), "국민학교 고학년 학생의 진로성숙에 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김윤희(1996), "MMTIC에 의한 아동의 성격유형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에스더(1996), "인문계 고등학생의 성격유형과 진로인식 성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김정택, 심혜숙(1990),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 _____ (1993), "어린이 심리유형검사(MMTIC)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 _____ (1994), 「MBTI 적용 사례집 I」, 서울:한국심리검사연구소.
- _____ (1995), 「MBTI 안내서」, 서울:한국심리검사연구소.
- _____ (1995),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 안내서」, 서울:한국심리검사연구소.
- _____ (1995), 「MBTI 관계 논문요약집」, 서울: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 임승환 역(1993), 「나의 모습 나의 얼굴」, 서울:한국심리검사 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 제석종 역(1995), 「MBTI 개발과 활용」, 서울:한국심리검사 연구소.
- 김충기(1984), 「진로교육의 본질」, 배영사.
- _____ (1986), 「직업교육과 진로지도」, 배영사.
- _____ (198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성원사.
- _____ (1990),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양서원.
- _____ (1991), 「미래사회와 진로선택」, 배영사.
- _____ (1994),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과학사.
- _____ (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배영사.
- 김혜경(1996), “성격유형과 학습기술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 남경숙(1995), “MBTI의 성격유형과 Ego-gram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류영옥(1994), “C-MBTI를 활용한 집단진로상담이 아동의 진로성숙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박교한(1993), “국민학생의 진로인식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박아청, 장현덕(1992), “진로탐색훈련이 대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지도상담」,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송종건(1993),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안창규(1997), 「진로 및 적성 탐색검사의 해석과 활용」, 한국가이던스.
- 양승희(1998), “Carl Gustav Jung의 성격유형론에 따른 문제 해결 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부영(1991), 「분석심리학」, 일조각.
- 이재창(1992),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활용”, 「대학생활연구」, 제10권,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정근(1984),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중앙적성출판사.

- 이종학(1994), "진로성숙도와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지역사회개발대학원.
- 이현수(1989), 「성격과 개인차의 심리학」, 우성출판사.
- 정경연(1994), "C-MBTI에 나타난 국민학생의 성격유형과 지능 및 학업성취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한국심리유형학회(1997),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제4권.
- 허선자(1995), "청소년 심리유형에 따른 직업흥미와 지각된 유능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정(1991), "고등학교 행정의 실적평가에 관한 연구 - Carl G. Jung의 성격유형론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홍지영(1995), "청소년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Apostal. R. & Marks. C. (1990), Correlations between the Strong Campbell and Myers-Briggs scales of introversion - extroversion and career interests, *Psychological Reports*.
- Duane Brown, Linda Brooks & Associates(1980),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Jossey-Bass Inc., Pub.
- Gart W.Peterson, James P.Sampson, Jr., Robert C. Reardon(1991), *Career Development and Service*, Brooks/Cloe Pub.Co.
- Ginzberg, E(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 A Restat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 Herr, E.L. & Cramer, S. H(1984),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Systematic Approches, Boston : Little Brown.
- Holland, J. L(1985a), *Making Vocational Choice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_____ (1992), *Making Vocational Choices-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y and Work Environments*(2th ed), odessa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Isaacson, L.E(1985), *Basics of Career Counseling*, Purdue Uni, Allyn and Bacon, Inc. Isaacson, Isaacson.
- Scott T. Meier, Vocational Behavior(1991),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 Zunker, V.G(1994), *Career Counseling, California* : Brooks/cole Pub.Co.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sonality Type and Career Type²⁾

Ko, Eun-Hwa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sonality type and career type, and understand suitable to the careering education, provide basic material effective career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areering education program.

The questions for this study were as follow :

- 1) Is there any difference in career type (R, I, A, S, E, C) to four preference tendencies (E-I, S-N, T-F, J-P) of the children's personality type?
- 2) Is there any difference in career type (R, I, A, S, E, C) to four functions (ST, SJ, NT, NF) of the children's personality type?
- 3) Is there any difference in career type (R, I, A, S, E, C) to four temperaments (SP, SJ, NT, NF) of the children's personality type?

2)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13 children in 4th - 6th grade at a primary school in Cheju city. Tools used in the study were Murphy - 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MMTIC) and standardized career development tes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t-examination, ANOVA using by SPSS/PC+.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career type to extravert tendency, realistic · investigative career type to intuitive tendency, social career type to feeling tendency.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to four functions in order of NF, SF, NT, SF in social career type.

The finding of this study make it possible to conclude that career education should consider children's personality type and ability. Also the children who have U band were included to careering education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use other factors to decide career type in addition to personality type.



< 부록 2 > 아동용 성격유형 검사지

이 검사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관계된 몇가지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비슷한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이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기 원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기 원하는대로 대답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시오. 여기에서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직 하나의 답만을 골라 준비되어 있는 답안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답 모두 여러분과 비슷하다면 이 중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998년 3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상담심리전공 고은화 드림

※ 해당되는 곳에 ○ 표 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남 () 여 ()

2. 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 제 1 부 >

-
1. 나는 새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이
㉠ 재미있다.
㉡ 어렵다.
2. 어떤 특별활동반에 들어갔을 때, 나는
㉠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신난다.
㉡ 그 반에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지낼까 걱정된다.
-
3.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나는 우리편이 게임을 잘해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는 우리편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장난감, 라디오, 컴퓨터 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뜯어서 알아보는 일
㉡ 금붕어나 강아지를 돌보는 일
-
5. 나는 친구들에게?
㉠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들은 것에 대해 얘기하길 좋아한다.
㉡ 내가 상상으로 생각한 것을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6. 어떤 이야기를 더 좋아하나요?
㉠ 실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들
-
7. 새학년이 되어서 반이 바뀌었을 때 나는?
㉠ 누구한테든 내가 먼저 말을 건넨다.
㉡ 누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린다.
8. 나는?
㉠ 많은 친구들을 원한다.
㉡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원한다.
-
9. 나에게 더 재미있는 일은?
㉠ 여럿이 함께 일하는 것이다.
㉡ 나 혼자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10.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 불공평한 것
㉡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

11.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 내가 틀리지 않고 맞을 때
- ㉡ 내가 친구를 기쁘게 해줄 때

12. 나는?

- ㉠ 공평한 사람이 되고 싶다.
 - ㉡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

13. 나는?

- ㉠ 내가 할 줄 아는 놀이를 하고 노는 것이 좋다.
- ㉡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서 노는 것이 좋다.

14. 나는 게임이나 공작을 할 때?

- ㉠ 전에 배웠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
 - ㉡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서 해볼 때 더 재미있다.
-

15.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학생들에게 무엇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 ㉡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16. 나는?

-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곧바로 아는 편이다.
 - ㉡ 곧바로 알기보다 어떻게 해볼까 하고 나의 상상을 먼저 사용하는 편이다.
-

17. 어느 것을 더 싫어하나요?

- ㉠ 무슨 일이 일어났으나 이유를 모를 때
- ㉡ 친구가 화난 말투로 나를 대할 때

18. 도둑질하는 학생에 대해 나는?

- ㉠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19. 나는?

- ㉠ 나를 위해서 이미 결정된 일을 좋아한다.
- ㉡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20. 나는?

- ㉠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논다.
 - ㉡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먼저 재미있게 놀고 난 후에 해도 괜찮다.
-

21. 만약 우리반에 담임 선생님 대신으로 온 새 선생님께서, 오늘 시간표를 누가 좀 설명해 주길 바란다면?

- ㉠ 내가 해 드릴 수 있으면 기쁘겠다.
- ㉡ 나 말고 다른 친구가 말씀드려 주었으면 좋겠다.

22. 경주로 여행하려고 할 때

- ㉠ 나는 경주에 대해 주로 많이 생각한다.
 - ㉡ 나는 경주 말고도 이곳저곳 여러곳을 상상하고 생각해본다.
-

23. 나는 선생님들이?

- ㉠ 수업 계획에 따라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맞추어 조금씩 바꾸어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4. 어느 쪽이 더 재미있나요?

- ㉠ 친구들과 함께 무엇인가 하는 일
 - ㉡ 내가 좋아하는 일을 혼자 하는 것
-

25.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 ㉠ 똑바로 곧은 선
- ㉡ 둥글둥글한 원

26. 나에게 어느 일이 더 쉬운가요?

- ㉠ 가족 한사람 한사람의 생일 날짜를 말하는 것
 - ㉡ 생일 카드를 그리는 것
-

27. 학교에서 내어 주는 숙제는?

- ㉠ 하기 쉽게 잘 짜여진 숙제를 나는 좋아한다.
- ㉡ 새롭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숙제를 나는 좋아한다.

28. 가장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데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나요?

- ㉠ 무엇을 보면서 생각할 때
 - ㉡ 무엇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생각할 때
-

29.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 ㉠ 친구에게 공평한 것
- ㉡ 친구에게 친절할 것

30. 독서할 때 나는?

- ㉠ 내가 좋아하는 책은 읽은 것을 또 읽는다.
 - ㉡ 새로운 다른 책을 읽는다.
-

31. 나는?

- ㉠ 많은 친구들에게 얘기하길 좋아한다.
- ㉡ 친한 친구들에게만 얘기하길 좋아한다.

32. 달리기해서 이겼을 때 나는?

- ㉠ 기분이 아주 좋다.
- ㉡ 기분은 좋는데 진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 생각한다.

33. 어떤 선생님을 더 좋아하나요?

- ㉠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할지 알려주는 선생님
- ㉡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기는 선생님

34.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35. 선생님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어야 한다.

< 제 2 부 >

36. 한 친구가 너무 느려서 여러분의 운동팀에 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 ㉠ 그 친구에게 느려서 끼워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준다.
- ㉡ 다른 이유를 말해 주면서 우리 팀에 끼워 줄 수 없다고 말해준다.

37. 이야기를 만들어 낼 때 좋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나요?

- ㉠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얻는다.
- ㉡ 상상을 해보면 얻어진다.

38. 둘 중 어느 것이 더 재미있나요?

- ㉠ 산수 문제를 푸는 일
- ㉡ 친구에게 책 읽기를 도와 주는 일

39. 우리편이 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 ㉠ 다음번에 이기도록 계획을 짠다.
- ㉡ 먼저 우리편 사람들의 기분을 돋구도록 노력한다.

40.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아이들이 해야할 일을 말해 주어야 한다.
- ㉡ 아이들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도록 맡겨야 한다.

41. 갑자기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나는?

- ㉠ 하던 일을 잘 못한다.
- ㉡ 어려워도 더 재미있게 일한다.

42. 나는?

- ㉠ 어떤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움직이는지 알아내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 ㉡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생각해내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43.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그려진 그림에 색칠하기
- ㉡ 이야기 지어내기

44. 그림조각(퍼즐) 맞추기를 할 때

- ㉠ 한쪽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맞추어 갈 때 더 잘한다.
- ㉡ 그림의 여기저기를 맞추어 보면서 들어갈 때 더 잘한다.

45.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 ㉠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 ㉡ 내 기분을 마음 속에 간직한다.

46.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은?

- ㉠ 신난다.
- ㉡ 처음에 어색하다.

47.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 ㉠ 짜여진 계획을 실천하는 일
- ㉡ 새로운 계획을 짜는 일

48. 사람들은?

- ㉠ 질서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자신들이 선택하는 방법대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49. 게임 할 때 규칙은?

- ㉠ 바뀌어서는 안된다.
- ㉡ 필요할 때 바뀌어야 한다.

50.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실제 일어난 일
- ㉡ 일어날뻔한 일

51. 나는?

- ㉠ 특별한 일은 미리 짜두는 것이 더 좋다.
- ㉡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 더 좋다.

52. 학교과제를 할 때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
- ㉡ 혼자 하는 것

53.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것
- ㉡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

54. 나는?

- ㉠ 사람들은 규칙을 알 때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 ㉡ 사람들은 누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

55. 내가 자전거를 탈 때는?

- ㉠ 어디로 갈지 미리 생각하고 탄다.
- ㉡ 그냥 주위를 휘 돌아온다.

56.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모였을 때 어떻게 하나요?

- ㉠ 그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얘기도 나눈다.
 - ㉡ 그 친구들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도록 기다린다.
-

57.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내가 정리정돈을 하는 깨끗한 방
- ㉡ 내가 마음대로 풀어놓을 수 있는 방

58.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어른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일을 해나가는 일
 - ㉡ 새로운 방법을 일을 해나가는 일
-

59. 공부할 때?

- ㉠ 친구들과 함께 하길 좋아한다.
- ㉡ 혼자서 하면 더 잘 된다.

60. 어느 쪽을 더 원하나요?

- ㉠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
 - ㉡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해보는 일
-

61. 일을 할 때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사람들을 모으고 일을 시키는 일
- ㉡ 사람들이 재미있게 일하도록 도우는 일

62. 나는?

- ㉠ 사람들은 먼저 일하고 놀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먼저 놀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63. 친구들과 게임할 때, 장난감 공이 하나 필요하다면?

- ㉠ 하나 구하도록 노력한다.
- ㉡ 신문지 같은 것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우선 논다.

64. 어느 쪽을 좋아하나요?

- ㉠ 내가 손으로 직접 무엇을 만드는 일
 - ㉡ 앉아서 상상해 보고 공상해 보는 일
-

65. 동굴을 생각하면?

- ㉠ 어두침침하고 무서워 보인다.
- ㉡ 뭔가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세계를 안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66. 나는?

- ㉠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대체로 같이 좋아한다.
 - ㉡ 다른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

67. 생일 파티를 할 때

- ㉠ 나는 먼저 계획을 세운다.
- ㉡ 나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친구들이 즐겁게 놀다 갔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부터 가진다.

68. 주위에 친구들이 많으면

- ㉠ 얘기할 사람이 많아서 좋다.
 - ㉡ 처음엔 좋으나 좀 있으면 피곤해진다.
-

69.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위인전이나 역사만화
- ㉡ 공상과학 이야기

70. 어른들에게 자기자신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일은

- ㉠ 쉬운 편이다.
 - ㉡ 어렵고 쑥스러운 편이다.
-



< 부록 3 > 진로 발달 검사지

이 검사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상급학교 진학이나 졸업후 직업을 가지게 되는 등의 진로에 관한 생각들을 알아보고 또한 여러분 자신의 흥미, 성격 그리고 유능감을 알아봄으로써 장래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이 검사에는 맞거나 틀리거나 혹은 좋거나 나쁜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문제를 차례로 읽어 가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선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은화 드림

※ 해당되는 곳에 ○ 표 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남 () 여 ()

2. 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 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